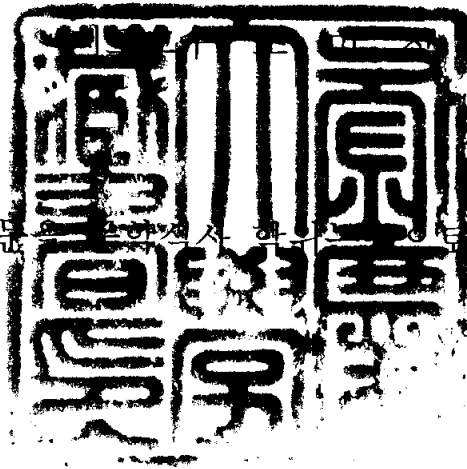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고등학생의 맞춤법 오류 분석과
교정 지도 방안 연구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정 영 섭

정영섭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6월 일

주 심 문학 박사 박영준



위 원 언어학박사 김희섭



위 원 언어학박사 조미정



<요약>

고등학생의 맞춤법 오류 분석과 교정 지도 방안 연구

국어교육전공 정 영 섭

지 도 교 수 조 미 정

교육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맞춤법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의 역할이 크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전의 맞춤법 연구에서는 맞춤법 오류를 개인의 문제로 지적하거나 교육 방법의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좀더 열심히 교육하거나 학습한다면 맞춤법 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맞춤법 오류가 단순한 교수-학습 과정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만은 아님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글 맞춤법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었고, 그 확산과 정착에 들인 노력이 적었음을 지적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입시에서도 학생들이 맞춤법을 충실히 학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 정보화 시대인 현대의 방송, 인터넷 등의 환경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고등학생들의 맞춤법 사용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 오류 교정을 위한 수준별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였다. 물론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 등한시하고 있는 맞춤법 문제를 현실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은 수준별 교재를 구안하고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뒤 학습 능력과 관심에 따른 자주적 학습을 통해서 맞춤법을 학

습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맞춤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맞는 표기를 할 수 있다’는 태도로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며, 사전과 맞춤법 규정을 활용하여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 례

I. 맞춤법과 국어 교육	1
1. 언중은 왜 맞춤법을 자주 틀리는가	1
2. 왜 맞춤법 지도 연구가 필요한가	2
3. 이전의 맞춤법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4
4. 연구의 방향	7
II. 맞춤법 오류의 구조적 원인 분석	9
1. 맞춤법의 변천과 원리 분석	9
2. 교육적 원인 분석	13
3. 방송, 인터넷 등의 주변 환경의 영향	25
III. 고등학생의 맞춤법 오류와 그 분석	28
1. 표집 및 분석 방법	28
2. 유형별 오류 분석	28
IV. 오류 교정을 위한 한글 맞춤법 수준별 교수-학습 방안 연구	46
1. 교수-학습 모형 구안	46
2. 지도 교재 구안	48
3. 교수-학습 과정	52
4. 지도 결과 분석	57
V. 결론	64
1. 결론	64
2. 제언	65
참 고 문 헌	67
<Abstract>	69
부 록	71

<표 차례>

<표 1> 국어과 내용 체계	14
<표 2>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표준어 및 맞춤법 관련 학습 내용	15
<표 3>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의 표준어 및 맞춤법 지도 내용	16
<표 4> 선택과목의 표준어 및 맞춤법 관련 지도 내용	18
<표 5> 음운론적 오류 분석	34
<표 6> 형태음운론적 오류 분석	42
<표 7> 그 밖의 것 오류 분석	45
<표 8> 종류별 오류의 비율	45
<표 9> 표준어 및 한글 맞춤법의 내용별 기본 학습 요소	49
<표 10> 차시별 학습 내용 및 학습 자료	55
<표 11> 연구 성과 평가 계획	57
<표 12> 진단 평가 정답률 비교	58
<표 13> 설문 조사 응답 내용 (N=173)	59
<표 14> 형성 평가 정답률 비교	61
<표 15> 설문 조사 응답 내용 (N=171)	62

<그림 차례>

<그림 1> 수준별 수업 기본 모형	48
<그림 2> 학습지의 구성 순서	50
<그림 3> 진단 평가지	51
<그림 4> 형성 평가지	52
<그림 5> 맞춤법의 수준별 교수-학습 절차	53

I. 맞춤법과 국어 교육

1. 언중은 왜 맞춤법을 자주 틀리는가

교육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행위, 과정’이다. 교육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된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말을 표기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자신감이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 맞춤법에는 자신이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의 문제에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이중적 체계로 이루어진 우리말 어휘 체계의 문제, 음소문자이면서도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맞춤법 원칙의 문제, 근대화 과정에서 다양한 외국어·외래어의 영향을 받은 문제 등의 다양한 언어적 원인으로 맞춤법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통신과 문자 메시지 등 전자 문자 사용의 영향으로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자유롭게 파괴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까지 나타나 맞춤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¹⁾

한글 맞춤법의 올바른 사용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이 많은 변화를 보이는 과정에서 언중에게 정확

1) 이에 대해 위호정(1999 : 240)에서는 맞춤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항상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맞춤법 교육을 행하는 이유는 문자 언어를 사용할 때 언제나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자 표준어가 가장 효과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맞춤법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한 지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그 결과 언중은 맞춤법 사용에 자신감을 잃게 된 것이다.

2. 왜 맞춤법 지도 연구가 필요한가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목적·대상·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으며, 국어 활동의 다양한 과정 속에 올바른 표기법은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이 분야에서 의도적인 교육의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어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맞춤법 교육의 지도 목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쓰는 이로 하여금 맞춤법의 여러 규정에 부합하도록 누구나 한 가지 사항은 한 형태로만 적게 하는 것이며, 한글이 낱소리 글자라는 것과 그 낱말에 맞는 받침을 옳게 골라 쓰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쓴다는 것은 표준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것과 같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여 개인의 이미지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글쓰기를 할 경우에도 맞춤법에 맞게 써야 정확한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맞춤법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글쓰는 과정에서 글의 내용보다는 표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맞춤법 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지도되다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지도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도 맞춤법에 자신 없어 하며 잘못된 표기를 하는 것은 맞춤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맞춤법 교육은 학생들에게 정확한 맞춤법이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단어들을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태도 함양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학생들에게 모든 단어들을 정확히 표기하고, 단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세부터 길러 주도록 해야 한다.

또 맞춤법 교육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어와 표준 발음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어 발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삼스럽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학교 교육에서도 표준 발음 교육을 소홀히 여겨온 것이 사실이며 국어 시간에도 발음 훈련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음성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 되어 있지 못한 채 문자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언어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린 시절에는 시각적인 구별을 이용하여, 다음에는 청각적이거나 음성적 일반화를 이용하고,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구조와 형태소 분석 등을 이용한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발달 단계를 이용하여 맞춤법 교육을 하면 국어 전반에 대한 음운 규칙을 이해하게 되고 독서 능력이 향상되며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어 사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국어 교육의 역할이다.

맞춤법 교육에서는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음운 규칙을 이해하고 형태소를 이해해야 올바른 표기를 할 수 있다. 즉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는 과정은 언어의 모든 층위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맞춤법에 관련되는 언어학적 지식을 제공해 주고, 학생들이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는 데 언어학적 지식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

다.(위호정, 1990 : 32)

맞춤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표준 발음을 어떤 것으로 정할 것인가, 서울 지방의 방언에 불과한 표준어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일인가 등의 순환론적 논쟁에 말려들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한글 맞춤법의 의도적인 지도가 국어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정확한 국어 표현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3. 이전의 맞춤법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김귀옥(1984)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80문항의 자료를 만들었다. 이는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부록 규정에 관한 것, 표준말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져 이 연구가 한글 맞춤법 개정 전의 연구지만 한글 맞춤법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틀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글 맞춤법의 개정(1988)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진행된 것으로 실제 조사 내용을 반영한 맞춤법의 제정에 기여할 수 있었던 연구라 할 수 있다.

부용균(1997)은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에 관한 어휘 80문항을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 사용 실태를 조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80개의 문항이 어떤 근거에서 추출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교수-학습 내용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집단 설정에 유목적적인 기준이 없이 연구자의 편의에 따름으로써 결과 분석이 유의미한 범위에서 분석될 수 없었다. 특히 제주도의 발음상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위호정(1990)은 1988년 고시된 한글 맞춤법에 따라 중학생들이 어떤 오류를 얼마나 범하고 있는지를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오

류의 종류를 한글 맞춤법의 열거에 따라 음운론적 오류, 형태음운론적 오류, 통사론적 오류, 규정적 오류로 분석함으로써 이후 오류 분석의 큰 틀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맞춤법 교정을 위한 처치에서 일반적인 문법적 설명에 그치고 있어, 한글 맞춤법 교수-학습에 학생의 자기 주도적 참여가 필수불가결인 점의 반영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최경화(1991)는 중학생의 맞춤법 표기 실태 분석을 통한 지도 방법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법의 오류 실태를 분석하여 맞춤법의 교정 지도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는 맞춤법 오류 유형을 ① 표준 발음을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 ② 단어의 기본형을 모르는 데에서 빚어지는 오류, ③ 단어의 통사적 기능의 혼동에서 생겨난 오류, ④ 어려운 맞춤법 규정과 개정된 맞춤법 규정을 모르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으로 분석하였고, 교육과정에 맞춤법 지도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위호정(1999)은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① 표준어를 적는다. ② 형태소를 구성하는 음운을 낱자의 음가대로 적는다. ③ 형태소의 모습을 고정시켜 적는다. ④ 국어의 보편적인 음운 현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리나는대로 적는다. ⑤ 새로이 형성된 단어가 그 단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형태소가 원래 의미에서 멀어졌을 경우에는 형태소의 모습을 고정시켜 적는 대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고 정리하고 있다.

김유정(2000)은 학생들의 맞춤법 인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초·중·고 학생에게 소리에 관한 것 12문항, 형태에 관한 것 19문항, 그 밖의 것 9문항의 40문항을 구성하여 집단간 비교를 통하여 맞춤법 인지도와 국어 성적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특히 지도 방안에서 저학년에서는 소리대로 표기함에, 고학년에서는 어법에 맞도록 표기함에 지도의 중점을 두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① ‘소리대로’에 대한 지도에 <녹음 테이프나 육성을 통한 표준 발음 청취하기, 낱말 카드 활용하기, 사전에서 표준 발음

찾기> 등의 방법과 ② ‘어법에 맞도록’에 대한 지도에 <원형 알기, 규칙 이해하기, 받아쓰기, 단문을 이용한 맞춤법 익히기, 교재를 통한 맞춤법 익히기, 퍼즐 게임하기>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라 할 수 있다.

박문제(2001)는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 선정을 위해 한글 맞춤법 각 조항을 ① 형태소가 홀로 쓰여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②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는데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③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는데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재구성하고 계열성·계속성·통합성을 기준으로 교육내용을 조직하였다.

강애경(2002)에서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 한글 맞춤법의 체계적인 지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교수-학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개인간 맞춤법 인지 수준에 큰 차이를 보여 한글 맞춤법 지도에 수준별 교육을 도입하여야 함을 보여주지만, 4주에 걸친 교육 내용이 과다한 느낌을 주고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도 지속적인 학습 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지금까지의 맞춤법 연구에서는 주로 현행 한글 맞춤법에 대한 비판(남영신)이나 개선에 대한 연구(이희승, 안병희)가 많았고, 한글 맞춤법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도 대부분이 틀리기 쉬운 단어 중심(김귀옥, 부용균, 김유정)으로 이루어졌다. 실태 조사의 경우에도 수치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 조사된 백분율이 실제로 유의미한 수치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부용균, 박문제)가 많았다. 결국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지 못하는 것을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나 학습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 경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고등 교육을 받고도 맞춤법에 자신을 갖기 어려운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 여겼다.

그 구조적 원인에는,

첫째, 한자어가 많은 어휘 체계, 표의 주의와 표음 주의를 모두 인정한 맞춤법 원칙, 외래어의 영향 등에 의한 언어학적 원인과,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 입시 위주의 교육 등에 의한 교육적 원인,

셋째, 방송, 인터넷 등 변화하는 환경의 영향에 의한 사회적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언어학적 원인은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맞춤법이 틀리게 되는 구조적 원인을 맞춤법 원칙 수준의 언어학적 원인, 교육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고등학생들의 맞춤법 오류를 분석하여 그 교정을 위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입시 준비로 시간이 부족한 고등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수준별 학습 계획을 구안하여 지도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4. 연구의 방향

이 연구에서는 우선 맞춤법을 틀리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맞춤법 제정의 역사, 맞춤법의 원리,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영된 문항들을 분석하여 맞춤법 오류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핀 후,

자료 수집을 위하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독후감, 수필 수행평가 과제물을 검토하여 한글 맞춤법 오류 사례를 수집하여, 학생들의 맞춤법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하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부록으로 실려있는 ‘표준어와 표준발음, 한글 맞춤법’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오류가 잦은 항목과 의문이 생기기 쉬운 제재

들을 재구성하여 학습지를 제작하고, 자주적 탐구학습이 가능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고 학생들을 지도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글 맞춤법 학습은 개인의 학습 과정 결핍에 의한 것
이라는 강박 관념을 버리게 하고, 옳은 표기법을 찾는 탐구적 자세를 기르
는 것이 올바른 맞춤법 학습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II. 맞춤법 오류의 구조적 원인 분석

1. 맞춤법의 변천과 원리 분석

가. 역사적 고찰

1) 훈민정음 창제 이전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는 정확한 표기 형식이 없었다. 향찰, 이두 등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는 차자 표기에 의지하여 문자 생활을 하거나, 한문을 사용하였다.

2) 훈민정음 창제 ~ 개화기

15세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우리는 비로소 우리말에 맞는 음운 문자에 의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적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특수한 맞춤법 문제가 발생한다. 맞춤법 문제는 주로 받침을 표기하는 방법과 관련된다. 받침 표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어적기이고 다른 하나는 끊어적기이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는 이 두가지 방법이 다 쓰였으나, 대체로 이어적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 이어적기의 방법은 개화기 무렵까지 약 45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국가에서 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뜻만 통하면 되었을 뿐, 표기의 옳고 그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3) 근대교육 초기 ~ 맞춤법 제정 이전

과거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맞춤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학교

교육 때문이었다. 1907년에는 국가에서 학부 안에 국문 연구소를 설치하고 이 연구소에서 국어 정서법을 체계화하는 일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1909년 이 연구소에서는 ‘국문연구의정안’을 만들었지만, 이 의정안은 공포 시행되지 못하였다. 최초로 공포된 맞춤법은 일제 강점기때인 1912년에 발표된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 이었다. 이 철자법은 국문 연구 의정안을 발전시킨 것으로 소리나는 대로 쓰는 표음주의를 택하였기 때문에 받침에 ‘ㄱ, ㄷ, ㅂ’ 등이 쓰이지 않았다.

4)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이후

한글 맞춤법은 1933년 10월 29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정·공포되었는데, 이 통일안은 총론 3개 항, 각론 7개 장, 6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1937년에는 1936년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발표됨에 따라 부록 표준어의 제7,8항의 표준말 어휘전부를 삭제하는 동시에 몇 개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순서를 바꾸고, 각 항의 용어와 용례들을 사정한 표준말로 수정·정리하였다. 1940년 6월 15일 2차 개정에는 제19항의 사동접미사 ‘-후-’를 ‘-추-’로 바꾸고 제30항의 사이시옷을 ‘뒤스간, 길스짐승’과 같이 중간에 쓰도록 하였으며, 제 29항의 문구를 수정하고, 부록의 부호를 증보·수정함과 동시에 통일안의 명칭을 ‘마춤법’에서 ‘맞춤법’으로 바꾸었다. 1946년의 3차 개정은 제30항을 다시 이전대로 환원시키고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를 붙여 쓰도록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해서 이들을 모두 띄어 쓰도록 하였으며, 둘 이상의 단어로 된 고유명사는 띄어 쓰는 등 몇 개의 ‘다만’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1948년에는 1946년 개정안의 전문을 모두 한글로 바꾸었으며, 1958년에는 통일안에 쓰인 문법 용어를 문교부에서 제정한 문법 용어로 바꾸었다. 그후 1979년부터 문교부를 주축으로 한 여러 개의 시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문교부 시

안(1979), 학술원 시안(1984), 국어연구소 시안(1987)) 이들을 바탕으로 1988년 1월 19일 당시 문교부 고시로 공포되어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이다.

나.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본문 6장과 부록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장은 절로 나뉘고, 각 절은 다시 항으로 나뉘어 각각의 원칙과 그에 따른 예시어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는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은 한글 맞춤법의 대상이 어느 한 방언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지역적·사회적 차이를 초월하여 가장 바람직한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 통일되고 규범화된 표준어라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한편,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 규정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 규정이 붙은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며 음소문자이므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 의해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한다. 이에 관련된 규정에는 된소리에 대한 규정(제5항), 두음법칙에 대한 규정(제10항 - 12항), 겹처나는 소리에 관한 규정(제13항)이 있다. 그러나 ‘소리대로’라는 원칙에서 떨어진 규정도 있는데, ‘ㄷ’소리 받침과 관련된 제7항과 ‘계, 계, 메, 폐, 헤’에서 ‘ㄱ’로 소리나더라도 ‘ㄱ’로 적으라는 제8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는 제9항의 규정

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말은 형태음소적 교체가 많기 때문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꽃’이란 단어는 [꼬치], [꼰나무], [꼰파]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소리가 나는데 이것을 소리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원칙이 더 붙었다. 즉 형태소의 배합 과정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그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표의주의적 원리가 붙은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규정은 구개음화에 대한 규정(제6항), 체언과 조사의 구별 규정(제14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구별 규정(제15항), 제3절의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규정(제19항-제26항), 합성어와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규정 중 제27항이 해당된다. 그러나 여러 변이형태 중 기저형을 정하기 어렵거나(제16항), 기본형을 밝혀 적을 경우 규칙 용언과 혼동이 되거나 잘못 읽힐 우려가 있거나, 어원의 뜻이 멀어졌거나 비생산적인 접미사가 붙는 경우는 ‘소리대로’의 원칙에 따르게 하였다

한글 맞춤법이 여러 기관의 시안을 바탕으로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공포된 것은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여러 기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채 맞춤법이 시행됨으로써 언중의 맞춤법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국어 사전에 수록된 어휘조차 다른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²⁾

2) 그 사례를 두 가지만 들어 보겠다.

우선 ‘끼어들다’와 ‘끼여들다’의 경우를 보면, 한글 맞춤법의 문교부 고시본(1988) 문장 부호 항목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반점’의 설명 (10)번 항목에서 ‘문장 중간에 ‘끼어들’ 구절...’로 표현된 낱말이, ‘줄표’의 설명 (1)번 항목에서는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이 ‘끼여들’ 때에...’로 표현되어 있다. 다른 문서도 아닌, 한글 맞춤법을 규정하는 문서에서도 통일되지 못하는 낱말에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는 ‘소리대로’라는 원칙과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조건이 서로 상충되는 두 원리가 쓰이고 있어서 소리대로 적을 것인지, 어법에 맞도록 적을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바로 이 점에서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구별하여 올바르게 표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³⁾

2. 교육적 원인 분석

가.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분석

대해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상, 2002)의 맞춤법 규정에서는 ‘이 경우, <끼어들다>나 <끼여들다>나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고시본대로 두기로 한다. 이하 같다.’고 무기력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례에 대한 문법적 설명으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2003) 69쪽에서는 ‘…한편, ‘ㅣ’의 뒤에 후설모음 ‘ㅓ,ㅕ’가 오면 ‘ㅣ’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ㅓ,ㅕ’로 바뀌는 일이 있는데, 역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설명이 있다.

이 사례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김민수 외(금성출판사)에는 두 단어 모두 아예 수록조차 되어있지 않으며, 이희승(민중서림)에서는 ‘끼어들다’로, 이기문(동아새국어사전)에서는 ‘끼여들다’가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어, 사전이 맞춤법의 모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 국립 국어 연구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끼어들기’만 수록된 것을 교과서에서도 수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들쭉날쭉’과 ‘들쭉날쭉’의 경우, 김민수 외(금성출판사)와 이희승(민중서림)에서는 둘 다 수록되어 있는 반면, 이기문(동아새국어사전)에서는 ‘들쭉날쭉’만 수록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표준어이며, 맞춤법에 맞는 것인지 밝히기가 힘들다. 이 예도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둘 다 표준어로 수록되어 있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2003) 250쪽에서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가 표준어인지 비표준어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으나, 사전에 수록된 어휘들이 이런 실정이고 보면 표준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이 원칙에 대해서는 북한의 ‘조선말 맞춤법’이 남한의 ‘한글 맞춤법’보다 맞춤법의 원칙을 훨씬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다.

“조선말 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조선말 규범집, 1987, 총칙)

국어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에 명시된 국어 지식의 내용 체계는 <표 1>과 같다.

<표 1> 국어과 내용 체계

국어 지식	• 국어의 본질 - 언어의 특성 - 국어의 특질 - 국어의 변천	• 국어의 이해와 탐구 - 음운 - 낱말 - 어휘 - 문장 - 의미 - 담화	• 국어에 대한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 국어의 규범과 적용 - 표준어와 표준 발음 - 맞춤법 - 문법		

이 체계에 따르면 표준어와 맞춤법은 국어의 본질·원리·태도에 두루 적용되는 요소로, 국어 지식을 가르친 마지막 결과로 구현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국어를 규범에 맞게 쓴다는 것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혼용한다는 국어의 특질과 맞춤법의 변천의 이해, 음운론·형태론적 국어 지식의 이해, 규범을 준수한다는 국어 사용 태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 높은 수준의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1)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초1-고1) 맞춤법 학습의 문제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부터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11학년과 12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 1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은 체계적인 위계를 가진 국어 교과서를 편성하려고 노력하였고, 교수-학습 방법은

심화·보충형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년별·영역별로 ‘학습 내용’과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교육과정에 명시하여 두었다. 그 중,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과 관련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표준어 및 맞춤법 관련 학습 내용

학교급별	학년	학습 내용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페이지
초등학교	6학년 (말하기, 듣기)	(5)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한다.	(기본) 한 편의 글을 표준 발음법에 맞게 소리내어 읽는다. (심화) 들려주는 말에서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게 발음한 말을 찾아 바르게 고친다.	76쪽
		(6)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표준 발음에 맞게 말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들과 토의한다. (심화) 표준 발음으로 말해야 하는 상황의 예를 찾는다.	
중학교	9학년 (국어 생활 3-1)	(2)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기본) 음운 변동 규칙을 알고, 음운 변동의 예들을 각각의 음운 변동 규칙에 대응시킨다. (심화) 음운 변동 규칙과 표준 발음, 표기의 관계에 대해 토의한다.	99-100쪽
		(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기본) 맞춤법에 맞게 한 편의 글을 쓴다 (심화) 다른 사람의 글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친다.	
		(7)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맞춤법에 맞지 않게 글을 써서 부끄러웠던 경험을 말한다. (심화)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국어 맞춤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토의한다.	
고등학교	10학년 (국어)	(6)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기본) 문법에 맞게 한 편의 글을 쓴다. (심화)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문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친다.	109쪽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 제시된 표준 발음 및 맞춤법 내용은 ‘표준발음 - 음운 - 맞춤법 - 쓰기’의 체계로, 맞춤법 학습의 위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 표에 제시된 대로 체계적인 맞춤법 학습이 필요한데, 실제 교과서에 나타난 맞춤법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의 표준어 및 맞춤법 지도 내용

학교급별	학년	학습 내용	교과서 지도 내용
초등학교	6학년 (말하기, 듣기)	(5)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한다.	표준발음에 맞게 발음하기, 길이에 유의하여 말하기 등 활동 중심 구성
		(6)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려는 태도 함양 지도, 표준발음의 필요성 토의할 수 있도록 구성
중학교	9학년 (국어 생활 3-1)	(2)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동화, 구개음화, 축약과 탈락에 따른 예를 원리를 생각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
		(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맞는 표기 고르기, 띄어쓰기, 문장 부호의 실습과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
		(7)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모둠별로 조사 대상을 정하여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조사하여, ① 낱말의 형태 오류 ② 띄어쓰기 오류 ③ 문장 부호 오류 ④ 기타(비표준어, 부정확한 낱말, 어색한 표현 등)의 항목별로 오류를 조사하도록 하여 활동 중심으로 구성
고등학교	10학년 (국어)	부록	(상)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하) 표준어 규정을 상세하게 제시함

이 체계를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표준 발음에 대해 지도하여 음운론적 오류를 교정하고, 중학교에서 문법 규칙과 맞춤법에 관해 지도하여 형태음

운론적 오류를 교정하며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고등 학교에서 국어 교과서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맞춤법을 정리하도록 되어있다.

이 체계는 국어과 내용 체계에 맞게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중학교 생활 국어 교과서에서는 음운의 변동 규칙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으나, 음운의 변동 규칙과 맞춤법의 상관 관계를 명확히 기술하고 있지 않다. 맞춤법과 음운의 변동이 별개의 학습처럼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제6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음운의 변동은 표기법과 비교하며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한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에 이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음운의 변동을 공부할 때에는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아 두어야 한다.’(중학교 국어 2-1 : 28)와 같은 표현이 있었던 것을 참고로 하여 맞춤법 지도는 표준 발음에만 적용되는 것과 표기에 적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규정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으나, 부록으로 처리하여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도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학습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 그리고 편성 순서도 (상권)에 표준어 규정을 제시하고 (하권)에 한글 맞춤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선후가 뒤바뀌어 한글 맞춤법을 표준어보다 먼저 접하게 되어 있다. 고등 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국어의 규범’ 단원에서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지도한 후에 ‘한글 맞춤법’을 가르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를 교과서에 참고 사항으로 수록했을 뿐, 상세한 지도의 기회를 염두에 둔 편성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선택중심 교육과정(고2-3) 국어과 선택과목 맞춤법 학습의 문제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선택과목으로 국어생활을, 심화선택과목으로 문법·화법·작문·독서·문학 과목을 선정하여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더욱 심화된 학습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그 중에 드러난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에 관련된 항목을 표로 제시하고, 각 과목별 교과 지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선택과목의 표준어 및 맞춤법 관련 지도 내용

과목	목표 및 중점	교과 편성 내용	분류
국어 생활	국어 사용의 원리나 지식을 실제의 국어 사용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신장시켜 국어를 원만하고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름.	(2) 국어 생활의 실천 (가) 바른 국어 생활 ① 국어 규범 지식 - 국어 규범의 기능을 이해한다. - 국어의 중요 규범을 익힌다. ② 국어 규범의 사용 - 국어 이해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 - 국어 표현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	일반 선택 과목
문법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탐구 학습을 강조하여 국어를 더 잘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국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찰력을 기름.	(3) 국어 가꾸기 (가) 국어 사용의 규범 ① 표준 발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②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 ③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이를 지킨다.	심화 선택 과목
작문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름.	5. 작문 내용 표현 ③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표현한다.	

가) 국어 생활 교과서의 경우

국어 생활 교과서의 맞춤법 관련 학습 내용은 대체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주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습 활동도 단편적이며 체계적이지 않은 편이다. 학습 활동의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 국어 생활 교과서의 학습 활동(예)

다음은 어느 학생의 전자 우편 내용이다.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⁴⁾

와, 아직 실감이 안 난다. 맨날 여기 들와서 그런가, 몇일 뒤부터 다른 애들 만나서 새로운 학년 시작한테는 게 믿어지지 안네...

(1) 윗글에서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은 곳을 있는 대로 찾아 글 위에 직접 고쳐 보자.

(2) 자신의 국어 생활은 어떠한지 반성해 보고, 한글 맞춤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말해 보자.

(노명완 외(2003 : 233))

이 학습 활동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한글 맞춤법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한글 맞춤법의 원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문제를 던지는 것은 한글 맞춤법의 지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나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한다는 강박적 태도를 가지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글 맞춤법을 지도할 때, 공식적인 때와 장소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4) 맞춤법은 항상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위호정(1999)의 의견은 옳다. 그는 “컴퓨터 채팅에서 즐겨 사용된다는 ‘안냐세여’, ‘방가방가’ 등은 금지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학생들의 편지에 사용된 ‘안녕~’, ‘쥬금이야’ 등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언어 사용은 옳고 그르다는 정확성의 잣대보다는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효용성의 잣대가 보다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어야 하며, 이는 문자 표기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고 하여 채팅 용어를 맞춤법에 맞게 고치는 활동을 효과적인 학습 활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문법 교과서의 경우

문법 교과서의 맞춤법 관련 학습 내용은 한 단원을 분리하여 ‘표준어와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성은 마치 우리말의 말소리, 단어의 형성, 어휘의 체계 등과 별개의 내용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말소리 단원에는 음운의 변동 현상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사이시옷을 제외하고는 맞춤법과 관련된 언급이 없으며, 단어 단원에서도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문법 현상을 기술하고 있지만 맞춤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음운 현상을 반드시 철자법과 연결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에 적용시킬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1.2-1. 문법 교과서의 예(모음동화)

아비 → [애비] 아지랑이 → [아지랭이]

위와 같은 동화 현상은 ‘ㅣ’ 모음 앞에 입술소리나 여린입천장소리가 놓일 때 잘 일어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뱀비, 멧쟁이, (불을) 땡기다’처럼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ㅣ’의 뒤에 후설모음 ‘ㄴ, ㄹ’가 오면 ‘ㅣ’의 영향을 받아 각각 ‘ㄴ, ㄹ’로 바뀌는 일이 있는데, 역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어 → [기여] 먹이었다 → [머기엿따]

다만,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의 경우는 [어]와 [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와 [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3 : 69))

표준어와 맞춤법 단원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 역시 맞춤법 규정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던 이전의 교과서에서 크게 나아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가 절대적으로 항상 옳은 언어가 아님을 보여주는 등, 국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접근은 보이고 있으나, 한글 맞춤법 교육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교재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습 활동의 내용이

미흡하다. 그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어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고압적 지시문으로서는 교육과정에 명시한 것처럼, 능동적인 학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2-2. 문법 교과서의 학습 활동(예)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혼동하는 예이다. 바른 것에 표시를 하고 ‘표준어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보자.

ㄱ. 한글 반포 제555[돌/돋]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ㄴ. 토끼가 [깡충깡충/깡충깡충] 뛰다.

ㄷ. [귀이개/귀개/귀후비개]로 [귀지/귀에지/귀밥]을 후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3 : 253))

그리고 문법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서도 ‘한 동호회 게시판에 올라온 가입 인사 겸 자기 소개서’의 내용을 맞춤법에 맞도록 고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국어 생활 교과서에서와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다) 작문 교과서의 경우

작문 과목은 원래 언어 지식과는 큰 연관이 없는 과목이지만,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는 단계에서 띄어쓰기와 맞춤법, 문장 부호 등이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므로 맞춤법과 연관된 학습 활동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작문 과목의 특성상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한다는 정도이지, 어떻게 맞춤법을 학습할지에 대한 논의와는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다.

1.3. 작문 교과서의 학습 활동(예)

※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2) 단어 수준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자.

①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 부호 등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자.

<도우미> 문장과 단어 수준에서 고쳐 쓸 때 유의할 점

… 단어 수준의 다듬기는 고쳐쓰기의 기본이 되는 단계이다. 단어의 선택이 적절한지, 그 의미가 명확한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법, 문장 부호, 띄어쓰기 등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검토한다. … 셋째, 유행어, 은어, 속어 등을 표준어로 고쳐 쓴다.

(권영민(2003 : 295))

이와 같이 국어 생활, 문법, 작문과 같은 교과서에서 한글 맞춤법이 다루지는 방향에 조금씩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국어 생활과 같은 일반 선택 과목이나 문법과 같은 심화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진지하게 올바른 국어 생활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대학 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법 관련 문항의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임을 고려해 본다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글 맞춤법의 교수-학습 연구는 그리 만만하지 않은 것임을 느끼게 된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 문항⁵⁾ 분석

5) 연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 문제

(1999년) 11.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 ① 흥건이 ② 그것만이였다면 ③ 큰일 ④ 한참 동안 ⑤ 괜찮다

(2000년) 12.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어쨌든 ② 소홀히 ③ 나날이 ④ 있을는지만 ⑤ 채

(2001년) 11. 맞춤법에 맞는 것은?

철수는 어머니를 도와 ㉠설것이를 하였다. 철수는 먹다 남은 ㉡찌게와 ㉢온갖 반찬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였다. 그 때 ㉣텔레비전을 보고 ㉤게시든 어머니께서 놀라며 말씀을 하셨다. “애. 안 돼. 분리 수거를 해야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2003년) 10. 제시된 낱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잘못 해결한 것은?

- ① 다리다: 약은 정성껏 다려야 한다./ 달이다: 내일 입을 옷을 달이고 있었어.
 ② 안치다: 이제 밥만 안치면 되겠구나./ 앉히다: 아이들을 어디에 앉히면 좋겠니?
 ③ 엉기다: 그릇에 기름이 엉기어 있군./ 엉키다: 여행 계획이 엉키어 버렸군.

고등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한글 맞춤법 관련 문항들을 보면 한글 맞춤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단편적인 문제들이 출제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출 문제 중, 맞춤법에 어긋난 사례로는 ‘홍건이→홍건히, 어쨌든→어쨌든, 설것이→설거지, 찌개→찌개, 태레비전→텔레비전, 계시든→계시던, 옷을 다리다/약을 달이다, 담아→담가, 작아→적어, 바램→바람’ 등이 출제되었다.

이것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 표준 발음에 관련된 것 : 홍건히, 찌개, 계시던

2.2. 준말에 관련된 것 : 어쨌든

2.3. 바뀐 규정 : 설거지

2.4. 외래어 표기법 : 텔레비전

2.5. 형태 분석 : 다리다, 달이다, 담가, 적어, 바람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맞춤법 관련 문항이 체계적인 문법 교육을 받은

-
- ④ 이따가: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만나자./ 있다가: 조금만 누워 있다가 일어나마.
⑤ 저리다: 다리가 저려서 걷기가 힘들구나./ 절이다: 배추를 절이는 방법을 배웠어.
(2004년) 13. 표현이 바르게 된 문장은?
① 김장을 직접 담아 드십니까? ② 내년에는 수출량을 더 늘려야 한다.
③ 모금한 돈이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④ 우리 모두의 바램은 가족의 건강이야.
⑤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릅니다.

고등 학생의 수학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편협한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한글 맞춤법이 해마다 60문항 중 한 문항 정도 반영되므로 학생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학습해야 하는 것으로는 여기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학생들이 맞춤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기회는 거의 없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이 단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지도 교사들도 체계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은 힘들인 것에 비하면 성과가 적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국어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진지하게 표준어 및 표준 발음과 한글 맞춤법을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국어 교과서에 규정의 전문을 실어 놓았지만 부록으로 처리하여 학습의 기회를 갖기 어렵고, 문법 교과서에서도 말소리, 단어의 형성과 맞춤법은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작문의 과정에서 맞춤법을 교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문법의 출제 비중이 낮고 체계적이지 않은 단편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 학생들이 한글 맞춤법을 어려워하면서도 꼼꼼하게 배울 기회는 한 번도 갖기 어려운 것이다. 그 결과 고등 교육을 받은 어른들조차 한글 맞춤법에는 자신감을 갖기 어렵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방송, 인터넷 등의 주변 환경의 영향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언어를 매개로 하고 있는데 언어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며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국립 국어 연구원에서는 언어 규범의 정비 노력의 일환으로 1999년 ‘표준 국어 대사전’을 펴내고, 2000년부터 언어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바른 언어 생활 확립의 기초를 닦고 있다. 2002년 실시된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방송, 인터넷 등의 한글 맞춤법 요용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대중 매체가 얼마나 언어 규범 준수에 무감각한가를 느낄 수 있다.

방송 분야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의 예는 동사 활용에서 모음 어미 ‘-아/ -어’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이다. 이는 방송 자막의 언어가 출연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써서 구어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이에요. -예요.’, ‘-르게.’를 쓸 때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자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3.1. 어미 ‘-아/ -어’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

- ㄱ.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받아.(→받아.)
- ㄴ. 괜찮아.(→괜찮아.)

3.2. ‘-이에요. -예요.’를 잘못 쓴 경우

- ㄱ.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마찬가지예요.)
- ㄴ. 이 사람이예요.(→이에요.)

3.3. ‘-르께., -거야.’를 잘못 쓴 경우

- ㄱ. 그냥 눈빛으로 말할께.(→말할게.)
- ㄴ. 도와줄께.(→도와줄게.)
- ㄷ. S는 무조건 싫어할꺼야.(→싫어할거야.)

3.4. 그 외의 경우

- ㄱ. 175cm 안 돼쥬.(→안 되쥬.)
- ㄴ. 오늘 최고의 공연이었어.(→공연이었어.)
- ㄷ. 금새(→금세)
- ㄹ. 님(→임)

이에 비해 인터넷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이시옷 표기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3.5. 사이시옷이 빠진 경우

- ㄱ. 단오날(→단옷날)
- ㄴ. 담배값(→담뱃값)
- ㄷ. 장마비(→장맛비)
- ㄹ. 바지가랑이(→바짓가랑이)

3.6. 사이시옷이 덧붙은 경우

- ㄱ. 뒷꽂무니(→뒤꽂무니)
- ㄴ. 바닷물결(→바다 물결)
- ㄷ. 꼬릿말(→꼬리말)

학생들이 많은 매체를 통하여 국어를 접하게 되지만 특히 공중파 뉴스나 신문, 인터넷 등과 같이 권위있는 매체에서 사용하는 국어에 대해서는 아무 의심없이 ‘바른 말’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이들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어문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많아 그 권위와 영향력에 내용의 수준이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심한 경우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기본적인 표준 발음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3.7.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 ㄱ. 금방 뽀록나고(→금방 탄로나고)
- ㄴ. 민증 까 봐.(→주민등록증 내 봐.)

3.8. 기본적인 표준 발음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

- ㄱ. 지들은(→저희들은)
- ㄴ. 기엡께(→귀엡께)

갈수록 커져만 가는 방송의 힘을 생각한다면 공식적인 방송·신문·인터넷 등의 맞춤법 오용 사례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맞춤법을 교육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잘못된 사례를 보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크다.

Ⅲ. 고등학생의 맞춤법 오류와 그 분석

1. 표집 및 분석 방법

고등학생의 맞춤법 오류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독후감, 수필 수행평가 과제물 670건을 검토하여 한글 맞춤법 오류 769 사례를 수집하였다.⁶⁾

그 오류의 유형은 한글 맞춤법의 체계에 따라 ① 소리에 관한 것(된소리, 구개음화, ㄷ소리 받침, 모음, 두음법칙, 겹쳐 나는 소리), ② 형태에 관한 것(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준말), ③ 그 밖의 것(이/히의 구별, 속음 한자어, 예사소리 어미, 된소리 접미사, 구별하던 말 통일(맞추다, 뵈치다), ‘-더라, -던, -든지’의 구별, 그 외 구별할 말)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띄어쓰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유형별 오류 분석

가. 소리에 관한 것

소리에 관한 오류는 주로 표준 발음을 모르는 데서 발생한 오류이므로 음운론적 오류라고 한다. 음운론적 오류의 유형은 모음의 혼란과 자음의 혼란으로 나누었고, 다시 모음의 혼란은 /ㅏ/와 /ㅓ/의 혼란, 단모음과 이중

6) 위호정(1999 : 240)의 의견과 같이 ‘맞춤법은 문자 표준어가 가장 효과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하므로, 수행평가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모음의 혼란, /니/의 혼란, /ㄴ/의 혼란, 기타로 나누었으며, 자음의 혼란은 ‘예사소리 - 된소리’의 혼란, /ㄹ/-/ㄹㄹ/의 혼란, 탈락과 첨가,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모음의 혼란

모음의 혼란 중 가장 심한 빈도를 나타낸 것은 /ㅏ/와 /ㅓ/의 혼란으로, 모두 113개(32.5%)의 오류를 보여서 /ㅏ/와 /ㅓ/의 표준 발음 지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 /ㅏ/와 /ㅓ/의 혼란의 예

1.1.1. /ㅏ/를 /ㅓ/로 발음하는 경우

- ㄱ. 가치를 매기기가(→매기기가)
- ㄴ. 내게(→내게)
- ㄷ. 찌개(→찌개)
- ㄹ. 밤을 세워(→밤을 새워)
- ㄹ. 도테채(→도대채)
- ㄷ. 예기(→애기)

1.1.2. /ㅓ/를 /ㅏ/로 발음하는 경우

- ㄱ. 매말라(→메말라)

이것은 연구 대상이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이어서라기보다 우리말의 두 음운이 혼동을 보이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도 ‘네가’를 발음하기 어려워 ‘니가’로 발음하는 사례는 흔하기 때문이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혼란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1.2.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혼란의 예

1.2.1. 체언의 경우

- ㄱ. 역활(→역할)
- ㄴ. 핑계(→평계)
- ㄷ. 휴계실(→휴게실)

1.2.2. 용언의 경우

- ㄱ. 허리 필(→허리 펼)
- ㄴ. 기대를 저버리지(→저버리지)

모음 /ㅅ/와 /ㅌ/가 혼란을 보이는 예로는 모음을 틀리게 적은 경우와, 관형격 조사의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으며, 유추의 오류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1.3. /ㅅ/와 /ㅌ/가 혼란을 보이는 예

1.3.1. 모음을 틀리게 적은 경우

- ㄱ. 대는 대로(→되는 대로)

1.3.2. 관형격 조사의 오류

- ㄱ. 극한에 상황(→극한의 상황)
- ㄴ. 당신에 삶(→당신의 삶)

1.3.3. 유추의 오류

ㄱ. 의리의리하다(→으리으리하다)

모음의 혼란의 기타 항목에서 가장 잦은 빈도로 나타난 오류가 /ㅣ/모음 역행 동화의 사례였다. 이 항목은 현실 발음과 맞춤법 간의 괴리를 보이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1.4.1. /ㅣ/모음 역행 동화의 예

ㄱ. 치명적인 것이였을(→치명적인 것이었을)

ㄴ. 단편집이었는데(→단편집이었는데)

ㄷ. 아니었다(→아니었다)

그 외에도 준말로 쓰다 보니 잘못을 저지른 경우와, 사투리 표현이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ㅏ/를 /ㅕ/로 잘못 발음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은 표준어 사용자도 흔히 저지르는 잘못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음운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1.4.2. 기타

1.4.2.1. 준말 오류의 경우 : 부서버릴(→부숴버릴)

1.4.2.2. 사투리 표현의 경우 : 킨다(→켜킨다)

1.4.2.3. /ㅏ/를 /ㅕ/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 : 놀랐다(→놀랐다), 바람(→바람)

특히 이 연구는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므로, /ㅡ/와 /ㅓ/ 모음의 혼란에서 오는 사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사례는 극히 적은 것이었다.

1.4.3. /ㅡ/와 /ㅓ/ 모음의 혼란의 예

1.4.3.1. /ㅡ/를 /ㅓ/로 잘못 적은 예

- ㄱ. 들러다(→들르다)
- ㄴ. 믿어라고(→믿으라고)
- ㄷ. 읽어라고(→읽으라고)
- ㄹ. 무릅서고(→무릅쓰고)
- ㅁ. 통털어(→통틀어)

1.4.3.2. /ㅓ/를 /ㅡ/로 잘못 적은 예

- ㄱ. 하마트면(→하마터면)

학생들의 표준 발음은 체언과 용언 모두에서 혼란을 보이지만 표기에 있어서는 체언의 경우에는 거의 혼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⁷⁾, 오류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자음의 혼란

자음의 혼란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예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경상도 방언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으로 보인다.

7) 경상도 방언 사용자의 경우 ‘흙’을 [헝]으로 ‘음악’을 [어막]으로 발음하는 사례는 흔하게 발견할 수 있으나, 표기에서 ‘헝’이나 ‘엄악’으로 표기하는 고등학생은 거의 없다.

1.1.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적힌 예

- ㄱ. 껌어(→굼어)
- ㄴ. 땡기는(→당기는)
- ㄷ. 문뜩(→문득)
- ㄹ. 뿌러지다(→부러지다)
- ㅁ. 켜게(→세게)
- ㅂ. 찼하게(→진하게)

다음으로 /ㄹ/ - /ㄷ ㄹ/의 혼란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려고’, ‘-려거든’ 등의 어미가 활용할 때 /ㄹ/ 소리가 덧나는 것이다. 이 오류도 17개나 보일 정도로 빈도가 높아 표준 발음의 지도가 필요한 항목으로 보인다.

1.2. /ㄹ/ - /ㄷ ㄹ/의 혼란의 예

- ㄱ. 갈려거든(→가려거든)
- ㄴ. 내보낼려고(→내보내려고)
- ㄷ. 올라고(→오려고)
- ㄹ. 최선을 다 할려고(→최선을 다 하려고)

탈락은 드물지만 몇몇 학생에게서 틀린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1.3. 탈락의 오류의 예

- ㄱ. 아들님(→아드님)
- ㄴ. 달달이(→다달이)

불필요한 음운을 첨가한 사례도 있었다.

1.4. 첨가의 오류의 예

ㄱ. 금고털이였췌다(→금고털이였었다)

기타의 사례로는 정확한 표기를 몰라 대표음이 같은 유사한 글자로 표기한 경우를 들 수 있다.

1.5. 기타

ㄱ. 내노라는(→내로라는)

ㄴ. 대여섯(→대여섯)

ㄴ. 마음췌(→마음껏)

ㄴ. 오랫동안(→오랜만에)

ㄴ. 한낫(→한낫)

음운론적 오류는 전체 오류의 45.1%나 되는 것으로, 사례를 빈도수 별로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음운론적 오류 분석

유 형			도수(개)	비율(%)
1	모음의 혼란	1 /ㅏ/ - /ㅓ/ 의 혼란	113	32.5
		2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혼란	21	6.1
		3 /ㅛ/, /ㅜ/의 혼란	24	6.9
		4 기타	125	36.0
2	자음의 혼란	1 예사소리- 된소리의 혼란	31	8.9
		2 /ㄹ/ - /ㄴ ㄴ/ 의 혼란(겹쳐나는 소리)	17	4.9
		3 탈락	10	3.0
		4 첨가	1	0.2
		5 기타	5	1.5
계			347	100

나. 형태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은 표준 발음은 알고 있으나 단어의 기저형을 모르는 데서 발생한 오류로 형태음운론적 오류라고 한다. 이것은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준말로 나누고, 여기에 한자어의 정확한 음을 몰라서 틀린 경우도 넣어 분석하였다.

1) 단어의 형성에서 생기는 오류

합성어 및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의 경우, 사잇소리 현상과 연관되어 많은 학생들이 오류를 보이고 있다. ㄴ과 ㄹ의 호전현상도 사잇소리 현상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항목이 52개 나타나 16.7%이 높은 빈도를 보이므로 지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1. 합성어 및 파생어 오류의 예

1.1.1. 사이시옷을 덧붙인 경우

- ㄱ. 댕가(→대가)
- ㄴ. 머릿말(→머리말)
- ㄷ. 햇님(→해님)

1.1.2. 사이시옷을 생략한 경우

- ㄱ. 머리속(→머릿속)
- ㄴ. 연두빛(→연둣빛)
- ㄷ. 죄값(→죄값)
- ㄹ. 회집(→회집)

1.1.3. ㄴ,ㄹ 호전 현상과 사잇소리 현상의 혼동으로 인한 오류

ㄱ. 반짚고리(→반짚고리)

ㄴ. 숯가락(→숯가락)

준말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되서(→돼서), 돼면(→되면)의 예이다. 이 사례는 맞는 학생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단순한 준말의 발음상 오류라기 보다는 용언의 활용에서 오는 오류로 보아 다음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2. 준말의 오류의 예

1.2.1. 명사 준말의 경우

ㄱ. 남자애(→남자애)

ㄴ. 힘든 애들은(→힘든 애들은),

1.2.2. 동사 준말의 경우

ㄱ. 남겨논(→남겨 놓은)

ㄴ. 아니잖니(→아니잖니)

1.2.3. 부사 준말의 경우

ㄱ. 넉넉치(→넉넉지)

ㄴ. 아뿔튼(→아무튼)

ㄷ. 어떠케(→어떻게)

ㄹ. 어째든(→어쨌든)

ㄹ. 도려(→도리어)

준말의 경우, 줄이지 않고 썼을 경우에는 오류가 별로 없으므로 자신이 불필요한 경우 줄여 쓰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한자어의 경우 한자에 대한 소양이 없으면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하기 쉽다. 이 항목도 오류의 사례가 많아(42개, 11.2%) 한자에 관심이 적은 세태가 드러났다. 한자어를 잘못 유추한 오류를 자음의 경우와 모음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3. 한자어 오류의 예

1.3.1. 자음의 경우

ㄱ. 결작(→결작(傑作))

ㄴ. 나침판(→나침반(羅針盤))

ㄷ. 야밤도주(→야반도주(夜伴逃走))

ㄹ. 낙엽(→낙엽(落葉)), 옆서(→엽서(葉書))

ㄴ. 물질 지양적으로(→물질 지향(指向)적으로)

ㄷ. 상막한(→삭막(索漠)한)

ㄷ. 신경질(→신경(神經)질)

ㅇ. 시련(→실연(失戀))

ㅈ. 엄현한(→엄연(奄然)한)

ㅊ. 옹호(→옹호(擁護))

ㅋ. 장애인(→장애(障礙)인)

ㅌ. 폭발(→폭발(爆發))

1.3.2. 모음의 경우

- ㄱ. 팽장히(→굉장(宏壯)히)
- ㄴ. 구애(→구애(求愛))
- ㄷ. 뇌졸중(→뇌졸중(腦卒中))
- ㄹ. 도원결으(→도원결의(桃園結義))
- ㄴ. 쇠뇌(→세뇌(洗腦))
- ㄷ. 전래동화(→전래(傳來)동화)
- ㄷ. 족쇄(→족쇄(足鎖))
- ㅇ. 정착역(→종착역(終着驛))
- ㅈ. 운명을 좌우하는(→운명을 좌우(左右)하는)
- ㅈ. 주의의(→주위(周圍)의)
- ㄱ. 학살(→학살(虐殺))
- ㅌ. 윤할류(→윤활유(潤滑油))

2) 조사의 오류

조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보였다.

2.1. 조사를 잘못 쓴 예

- ㄱ. 적지 많은 않았다 (→적지만은 않았다)
- ㄴ. 발버둥쳤던 것마저(→발버둥쳤던 것마저)
- ㄷ. 대학에 학과를(→대학의 학과를)

3) 용언의 활용에서 생기는 오류

형태음운론적 오류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보이는 것이 용언의 활용에서 생기는 오류이다.

그 중에서도 용언의 어간을 잘못 상정하여 생기는 오류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사례는 무려 120개로 31.9%나 차지하는 것으로 용언의 어간을 바로 찾는 공부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이 오류들을 형태소의 초성, 중성, 종성별 오류로 나누어본 결과, 종성과 관련된 오류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표음으로 소리나는 받침의 표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3.1. 형태소의 기저형 관련 오류

3.1.1. 형태소의 초성에서 일어난 오류

- ㄱ. 쑥쓰러운(→쑥스러운)
- ㄴ. 안스러운(→안쓰러운)
- ㄷ. 실루엣을 좇아서(→실루엣을 좇아서)
- ㄹ. 헤갈리는(→헛갈리는)

3.1.2. 형태소의 중성에서 일어난 오류

- ㄱ. 시간을 가르키다(→가리키다)
- ㄴ. 꺾핌하다(→꺾임하다)
- ㄷ. 흰머리(→흰머리)
- ㄹ. 눈에 떠다(→눈에 띄다)
- ㅁ. 눈에 띄게(→눈에 띄게)
- ㅂ. 돼내이며(→되뇌이며)

3.1.3. 형태소의 종성에서 일어난 오류

- ㄱ. 갑다니(→갸다니)
- ㄴ. 깎아(→깎아)
- ㄷ. 꿈혀있는(→꽃혀있는)
- ㄹ. 뚫릴 수(→뚫릴 수)
- ㅁ. 빗추는(→비추는)
- ㅂ. 낳았을지도(→나았을지도)
- ㅅ. 내딛을수록(→내디딜수록)
- ㅇ. 목숨을 받친(→목숨을 바친)
- ㅈ. 책을 잃었다(→책을 읽었다)
- ㅊ. 씹은(→씩은)
- ㅋ. 손씻기(→손씻기)

이 외에도 어미 활용에서 보이는 오류도 아주 많다.

3.2.1. 과거형 선어말어미 ‘-었-/-았-/-쓰-’에 관련된 오류

- ㄱ. 그레주셨듯이(→그레주셨듯이)
- ㄴ. 어쨌든(→어쨌든)
- ㄷ. 기뻔고(→기뻔고)
- ㄹ. 느꼈기에(→느꼈기에)

3.2.2. 용언의 명사화에 관련된 오류

- ㄱ. 없슴(→없음)
- ㄴ. 있슴(→있음)

ㄷ. 보기가 드뭇(→보기가 드뭇)

3.2.3. 용언의 연결형과 관련된 오류

ㄱ. 관심을 기울려(→기울여)

ㄴ. 없써서(→없어서)

ㄷ. 밤을 새어가며(→밤을 새워가며)

ㄹ. 끌어드리는(→끌어들이는)

위의 예 3.2.1.과 같이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았-/-쓰-’을 잘못 활용한 오류가 많이 보이고, 그 외에도 3.2.2.와 같은 명사형 전성어미 ‘-ㅁ/-음’의 활용에도 많은 오류가 보이며, 3.2.3은 용언의 연결형 어미 활용에서 오류를 보이는 예이다.

어미의 활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특히 많이 틀리는 것으로, 모음의 축약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되다’의 축약형인데, 되서(→돼서), 돼면(→되면)의 예를 들 수 있다. 3.2.4.와 같이 오류가 많아 지도가 강조되어야 할 사례이다.

3.2.4. 모음의 축약 오류의 예

3.2.4.1. ‘되’를 ‘돼’로 오기한 예

ㄱ. 가게 돼는데(→가게 되는데)

ㄴ. 이해가 돼었다(→이해가 되었다)

3.2.4.2. ‘돼’를 ‘되’로 오기한 예

- ㄱ. 오래되서(→오래돼서)
- ㄴ. 가게 뒀다(→가게 뒀다)
- ㄷ. 내가 잘 되야(→내가 잘 돼야)
- ㄹ. 소개되 있었다(→소개돼 있었다)

3.3과 같이 불규칙 활용에서 오류를 보이는 사례도 많다. ‘1.2. /ㄹ/ - /ㄷ/의 혼란의 예’도 불규칙 활용의 오류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표준 발음의 오류로 취급하였다. 활용에 관해서는 충분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3.3. 불규칙 활용의 오류

- ㄱ. 살은(→산)
- ㄴ. 푸르른(→푸른)
- ㄷ. 오거라(→오너라)

형태음운론적 오류의 빈도수와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표 6> 형태음운론적 오류 분석

유 형			도수(개)	비율(%)
1	단어의 형성	1 합성어 및 파생어	63	16.7
		2 준말	63	16.8
		3 한자어	42	11.2
2	채언 - 조사		7	1.9
3	용언의 활용	1 형태소의 기저형	120	31.9
		2 어미의 활용과 모음 축약	67	17.8
		3 불규칙 활용	14	3.7
계			376	100

나.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은 이/히의 구별, 속음 한자어, 예사소리 어미, 된소리 접미사, 구별하던 말 통일(맞추다, 뺀치다), ‘-더라, 던, -든지’의 구별, 그 외 구별할 말들의 맞춤법 규정을 몰라서 틀리게 되는 오류의 유형이다.

이/히의 구별을 못 해서 틀리는 것으로는 13개가 발견되었으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항목이다. 표준 발음에서 이/히를 구별하고는 있으나 ‘ㄱ’받침 뒤에서 ‘히’는 ‘이’로도 들리고 ‘히’로도 들릴 수 있으므로 이것들을 일반인에게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항목이다.

3.1. 이/히의 구별의 오류

3.1.1. ‘이’를 ‘히’로 적는 경우

- ㄱ. 깨끗히(→깨끗이)
- ㄴ. 꼼꼼히(→꼼꼼이)
- ㄷ. 열심히다(→열심히이다)

3.1.2. ‘히’를 ‘이’로 적는 경우

- ㄱ. 솔직히(→솔직이)
- ㄴ. 고스란히(→고스란이)

소리에 관한 것은 3.2.1.과 같이 본음으로 나는 것과 속음으로 나는 한자어의 오류와, 3.2.2.와 같이 예사 소리로 적는 어미를 된소리로 적는 오류, 3.2.3.과 같이 된소리로 적는 접미사를 틀리는 오류들이 자주 보인다.

3.2.1. 본음으로 나는 것과 속음으로 나는 한자어의 오류

ㄱ. 육월(→유월)

ㄴ. 십월(→시월)

3.2.2. 예사 소리로 적는 어미를 된소리로 적는 오류

ㄱ. 도와 줄께(→도와 줄게)

ㄴ. 먹을꺄(→먹을걸)

3.2.3. 된소리로 적는 접미사를 틀리는 오류

ㄱ. 지꺄툼(→지개툼)

그 밖의 것으로는 3.3.과 같이 구별해 쓸 말들을 혼동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3.3. 구별해 쓸 말들을 혼동하는 사례

ㄱ. 답을 맞추다(→답을 맞히다)

ㄴ. 갈런지/갈른지/갈려지(→갈는지)

ㄷ. 좋아하는 곳이라던지(→좋아하는 곳이라든지)

ㄹ. 온다든(→온다던)

ㅁ. 소풍간다고 하대(→소풍간다고 하데)

‘그 밖의 것’ 항목의 오류를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그 밖의 것 오류 분석

유 형		도수(개)	비율(%)
1	이/히의 구별	13	28.3
2	소리에 관한 것	20	43.4
3	그 밖의 것	13	28.3
계		46	100

앞에서 음운론적 오류, 형태음소론적 오류, 그 밖의 것으로 나누어 고등학생들의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이 오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들이 맞춤법과 관련하여 나타내는 오류에서는 형태음운론적 오류가 가장 많으며,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음운론적 오류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겠다. 오류의 종류별 비율은 <표 8>과 같다.

<표 8> 종류별 오류의 비율

오류의 종류	도수(개)	비율(%)
음운론적 오류	347	45.1
형태음운론적 오류	376	48.9
그 밖의 것	46	6.0
계	769	100

이 오류 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의 다음 장에서는 학생들의 표준어와 표준 발음 및 한글 맞춤법 수준별 수업 자료에 음운론적 지식과 형태음운론적 지식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안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오류 분석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빈도가 높은 사례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강조하여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안을 편성하였다.

IV. 오류 교정을 위한 한글 맞춤법 수준별 교수-학습 방안 연구

1. 교수-학습 모형 구안

학생들의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 기능의 사용 방법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현 및 이해의 과정에 동원되는 언어 기능은 설명식 방법만으로는 절대로 신장되지 않는다. 언어 기능의 지도에서는 개개 학생의 직접 참여와 경험, 그리고 개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특별한 관심과 교육적 노력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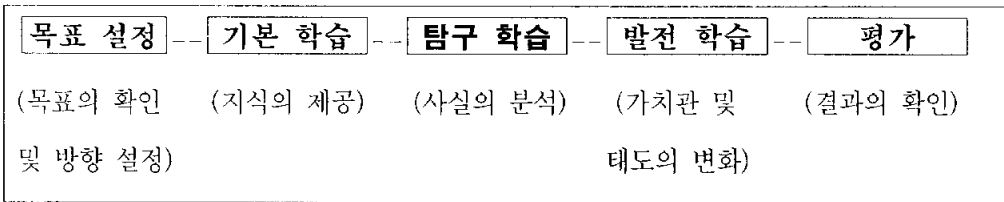
원리적 수준과 지금까지의 실험 연구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학생들의 직접 경험과 연습이 언어 기능 교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활동이 되어야 한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공동 작업이지만, 이 공동 작업의 주체는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점진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⁸⁾ 교사가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어떤 특정의 과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단계 혹은 과정들을 시범해 보일 때 학생들은 훨씬 더 잘 배우게 된다.

맞춤법 지도 역시 언어 기능 교수-학습의 일부이므로, 위에서 살핀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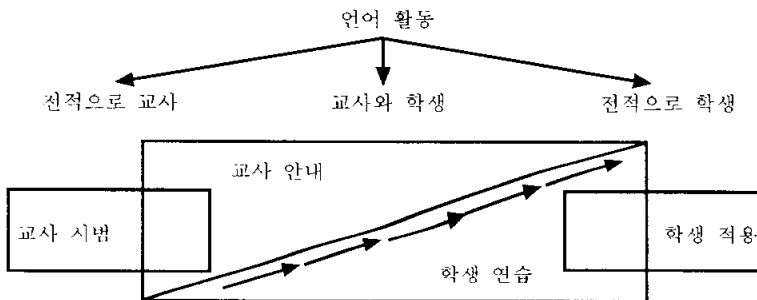
8) 노명완(1988 : 59~61)은 언어 기능의 교수를 아래 그림과 같이 모형화 하였다. 그림의 왼쪽이 교사가 설명과 시범을 통하여 언어 사용의 시범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오른쪽은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통해 배운 언어 기능을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이다. 이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 단계인데, 여기에서 교사는 기능 활용의 책임을 점차 학생에게 물려주고, 학생은 교사의 지도하에 연습을 함으로써 기능 활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는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의 지적 활동을 촉진시키고, 자신의 언어 사용에 대하여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져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면서 말하고 듣고 쓰고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능 교수 학습 모형에 의해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김광해(2001, p.109.)는 언어 지식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 학습'을 통하여 원리를 익혀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점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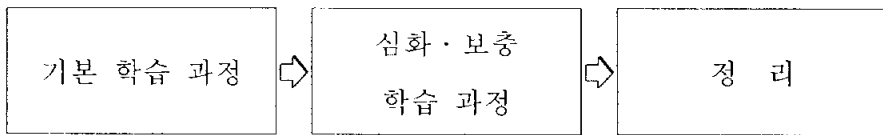
<그림 1> 언어 기능 교수-학습의 절차

교사는 모든 교수-학습 과정에 관여하여 학생의 지적 성취를 이끌어내는 역할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의 제 과정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학습 자료를 재구성하여 제공하며, 학생이 탐구 학습을 통하여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교수-학습의 일반적인 틀은 교사가 제공하지만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통하여 학생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점차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⁹⁾



9) 최근의 많은 논문들(강수진, 강애경)과 김광해(2001) 등은 국어 지식 교수 방법으로 탐구 학습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교수-학습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탐구 학습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이도 있다. 이대균(1994)는 국어 지식 교수 방법으로 학생 중심의 탐구 수업도 좋지만 수업의

이런 기본 절차를 염두에 두고 한글 맞춤법의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작성하였다.



<그림 1> 수준별 수업 기본 모형

이 모형에서는 기본 학습 과정에서 표준어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인지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자기 주도적인 개별 학습이 이뤄지도록 함을 목표로 하였다. 심화·보충 학습 과정에서 심화 과정은 토의를 통한 탐구 학습이 이뤄질 수 있으며, 보충 과정은 개별 학습을 통한 반복 학습으로 맞춤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의 한글 맞춤법 수준별 교수-학습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간단한 자료들을 토대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표준어와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을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맞춤법을 탐구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고, 국어 사전을 참고하게 하여 맞춤법을 두려워하거나 낯설어하고 자신없어하는 태도를 극복하고 한글 맞춤법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2. 지도 교재 구안

김광해(2001)는 일반적으로 언어 영역의 교수-학습 설계에서 유의하여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때 설명식 수업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글 맞춤법은 일종의 규범이므로 설명식 수업보다는 탐구 학습(발견 학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언어 학습 목표를 인식하도록 한다.
- ② 언어 영역은 개념의 습득 과정임을 반영한다.
- ③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언어 기능의 신장과 언어 사용 능력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개념 습득 과정에서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강조한다.
- ⑥ 단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학습 방법을 선정한다.
- ⑦ 교사는 학습자가 언어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
- ⑧ 언어 지식의 결과보다 국어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⑨ 개념 학습시 기본 사례를 예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준다.

위와 같은 원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 교재를 구안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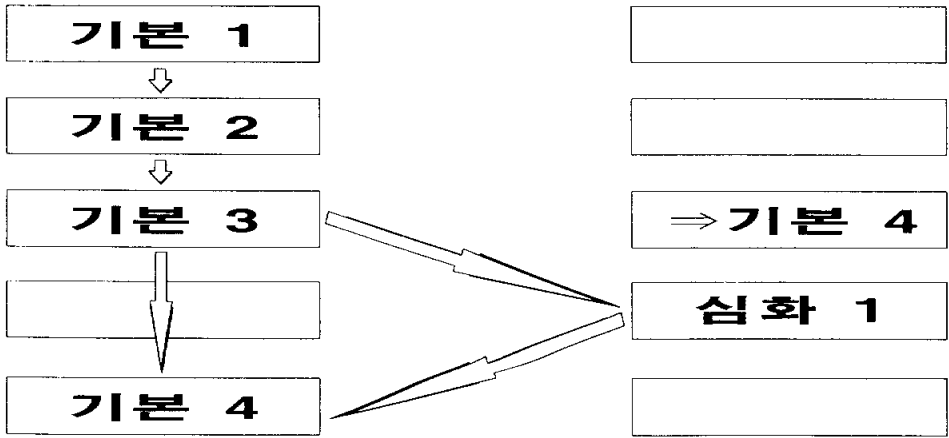
첫째,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표준어와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재를 구안하였다. 각 항목별로 기본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앞 장의 오류 분석에서 학생들이 혼동하거나 틀리기 쉬운 것을 문제로 만들고, 교과서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하였다. 한글 맞춤법의 내용별 기본 학습 요소는 <표 9>와 같다.

<표 9> 표준어 및 한글 맞춤법의 내용별 기본 학습 요소

구분	항목	기본 학습 요소	교수-학습 전개
표 준 어	총칙	개요	기본 1
	제3-5항	자음(거센 소리)	2
	제6항	자음(한 가지 형태)	3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	심화 1
	제8-9항	모음조화, ‘ㅣ’모음 역행 동화	4
	제10-12항	모음(단순화한 형태)	심화 2
	제11-13항	굳어진 모음	기본 5
	제14-17항	준말, 단수/복수 표준어	6
	제20-26항	고어, 한자어, 단수 표준어	심화 3

표 준 발 음	총칙	개요	기본 7
	제5항	이중 모음의 발음	8
	제6-9항	소리의 길이	9
	제10-16항	받침의 발음	10
	제17-30항	동화	11
	제27-30항	표준 발음 전반	심화 4
한 글 맞 춤 법	총칙	개요	12
	제5-6항	된소리	13
	제8-13항	두음 법칙	14
	제15항	어간과 어미	15
	제18항	불규칙 활용 어미	16
	제19-22항	접미사가 붙은 말	17
	제23-29항	접두사, 접미사가 붙은 말	18
	제30-39항	사이시옷, 준말	19
	제40-54항	'ㅎ, 하'가 준말, 이/히의 구분	20
	제56-57항	그 밖의 것	21
	전반	한글 맞춤법 전반	심화 5

학습지의 구성 순서는 <그림 2>와 같이 하여, 기본 과정을 거치면서 심화 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지는 기본 과정 21장, 심화 과정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학습지의 구성 순서

둘째, 고등학생의 한글 맞춤법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진단 평가 교재를 구안하였다. 진단 평가 자료에는 중학교 수준에서 학습이 이루어진 항목들 중 대표적인 표준어 세 문항을(수령, 오뚝이, 바람) 4지선다형으로 작성하였고, 나머지 12 문항은 한글 맞춤법을 빈칸 메우기 형식의 받아쓰기형으로 구안하였다. 진단평가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단 평가 - 표준어와 한글 맞춤법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 ① 수령 ② 수나사 ③ 수돗물 ④ 수소
- ① 깡충깡충 ② 막둥이 ③ 발가숭이 ④ 오뚜기
- ① 바람 ② 상추 ③ 미숫가루 ④ 주책 ⑤ 호부라기

♡ 다음 () 안을 선생님의 발음을 듣고 채우시오.

4. 시는 (운율)있는 언어로 쓴 문학 예술이다.
5.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다.
6.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
7. 여름이 되면 나무들마다 새파란 (이파리)를 손처럼 흔든다.
8. 편지를 (부치고) 오너라.
9. (사랑니)가 내려는지 잇몸이 아프다.
10. 청소를 (깨끗이) 하기 바랍니다.
11. 아라비아 (숫자)로 적으세요.
12. 반장이 (왜서) 기분이 좋지만, 3학년이 (되면) 힘들 것 같아요.
13. 걱정마. 내가 언제나 도와 (줄게).
14.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15. 사람(으로서) 내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림 3> 진단 평가지

셋째,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형성 평가 교재를 구안하였다. 형성 평가 교재는 이미 학습한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형성 평가에서는 표준어 찾기 4지선다형 4문항, 표준 발음 찾기 4지선다형 3문항,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 찾기 4문항, 맞춤법에 맞게 쓰기 빈칸 메우기형 4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형성 평가지의 내용은 <그림 6>과 같다.

형성 평가 - 표준어와 한글 맞춤법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 ① 뚫 ② 들쨌 ③ 셋째 ④ 빌리다
2. ① 미장이 ② 유기장이 ③ 멧쟁이 ④ 소금장이 ⑤ 담쟁이
3. ① 가든지 말든지 ② 가던걸 ③ 갈려고 ④ 먹습니다 ⑤ 없음

♡ 다음 중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4. ① 노을/놀 ② 막대기/막대 ③ 오누이/오늬 ④ 외우다/외다 ⑤ 꼭두각시/꼭두각시

♡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잘못된 것은?

5. ① 뉘[닉] ② 뉘과[닉파] ③ 밍다[발:파] ④ 밍고[밥:꼬] ⑤ 뉘등글다[뉘똥글다]
6. ① 국밥[국뽕] ② 신고[신:꼬] ③ 갈등[갈똥] ④ 할길[할결] ⑤ 산새[산새]
7. ① 막일[망닐] ② 꽃잎[폰닙] ③ 내복약[내봉낙] ④ 늑막염[능마겸] ⑤ 빨랫돌[빨래똥/빨래똥]

♡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8. ① 반진고리 ② 선달 ③ 숟가락 ④ 절가락
9. ① 모깃불 ② 등교길 ③ 아랫집 ④ 깃잎
10. ① 햇별 ② 핏기 ③ 햇님 ④ 솟자
11. ① 도와 줄께 ② 가면 갈수록 ③ 입을쏘냐 ④ 할지언정

♡ 다음 () 안을 선생님의 발음을 듣고 채우시오.

12. 식복일에 (부치는) 글
13. 상품의 (개수)를 적으세요.
14. 반장이 (돼서) 기분이 좋지만, 3학년이 (되면) 힘들 것 같아요.
15.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그림 4> 형성 평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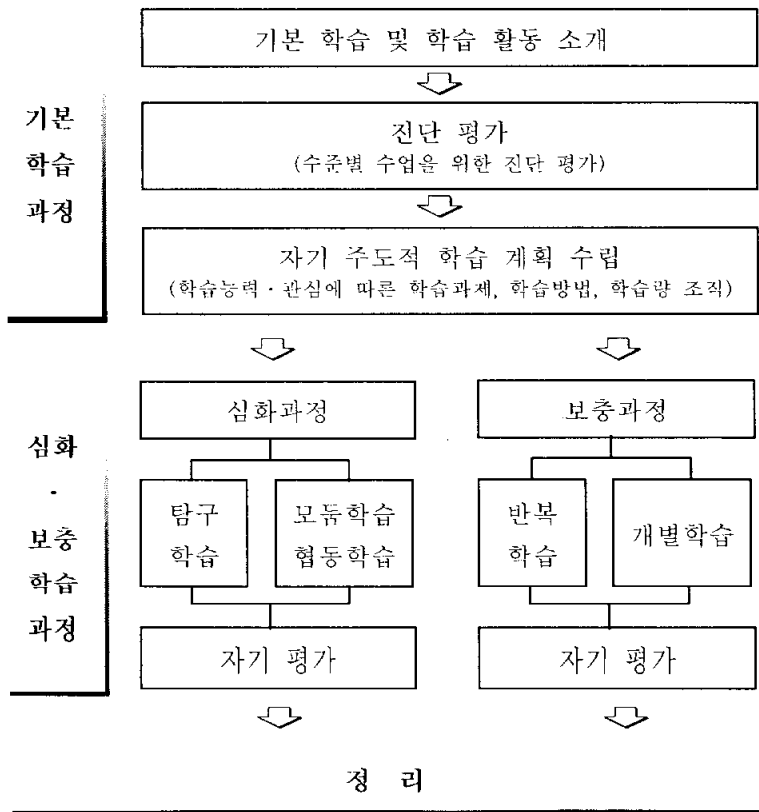
학습지를 구안할 때는 실제 수업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문제 발견이 용이한 자료, 즉 원리나 규칙을 발견하기 쉬운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리나 규칙 발견의 대표적인 사례를 문제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3. 교수-학습 과정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 지식 영역의 지도에서는,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탐구 학습을 강조하여 국어를 더 잘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국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찰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에게 ‘한글 맞춤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활용하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어 지식 영역의 탐구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 방법을 모색한 결과,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표준어와 한글 맞춤법을 활용하여 학생이 손쉽게 한글 맞춤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그림 5> 맞춤법의 수준별 교수-학습 절차

가. 기본 학습 과정

기본 학습 과정 단계는 한글 맞춤법의 학습을 전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수업의 제1차시에 기본 학습 과정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그림 5>에 서와 같이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학습 활동의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학생들의 선행 학습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진단 평가를 실시하였다.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으로 나눌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이므로 학생의 관심에 따라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나. 심화 · 보충 학습 과정

맞춤법의 수준별 교수-학습 활동의 성패는 학생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렸다고 생각될 정도로 한글 맞춤법의 규정과 사례들은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독자적인 사고의 전개가 부차적인 관심에 지나지 않아 전달되는 내용이 학생의 흥미와 무관하게 주입되므로 학습자의 성향에 맞지 않아 교육 효과가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심화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모든 학습지를 소화하도록 유도하였다.

학습지의 내용이 부담스럽지 않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습지에서 답을 추측해 보고,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표준어와 표준 발음 및 한글

맞춤법 규정을 확인하는 탐구 학습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학습 문제의 내용이 원리나 규칙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탐구 학습에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였다. 심화 과정 학생들은 교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모듈별 협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스스로 가설을 설정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보충 과정의 학생들은 기본 학습지를 모두 소화하는 것을 과제로 하였으나, 개인차에 따라 어려운 항목은 건너뛸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보충 과정 학생들의 학습 방법도 심화 과정 학생들과 비슷한 탐구 학습, 협동 학습의 모델을 적용하였으나, 보충 과정 학생들에게는 자주 틀리는 단어들을 별도로 적게 하여 반복 학습이 필요함을 지도하였고, 그 결과 개별화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한글 맞춤법 학습은 총 5차시를 할애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개요는 <표 10>과 같다.

<표 10> 차시별 학습 내용 및 학습 자료

차시	학습 내용	학습 방법	학습 자료	비고
1	진단 평가 및 학습 개요 설명	교사 안내	진단 평가지 기본1	
2	표준어 자주적 학습	개별 학습	기본2~5	과제
		개별 학습	기본6~심화3	
3	표준 발음 자주적 학습	개별 학습	기본7~10	과제
		개별 학습	기본11~심화4	
4	한글 맞춤법 자주적 학습	개별 학습	기본 12~14	과제
		개별 학습	기본15~심화5	
5	형성 평가 및 성과 정리	교사 안내	형성 평가지	

우선 첫 시간에는 진단 평가를 활용하여 진단 평가를 실시하였고, 2차시에는 표준어, 3차시에는 표준 발음, 4차시에는 한글 맞춤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인 수업 진행은 모두 개별 학습이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커서 수업 시간에 소화하지 못한 자료들은 과제로 다음 시간까지 작성해 오도록 지도하였다.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스스로 소화하는 학습이므로 최대한 협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자세로 지도하였으며 한글 맞춤법을 참고해도 알기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국어 사전에서 낱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정리

마지막 시간에는 그간 학습한 내용 중 총 15문항의 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형성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이 아직도 정확한 맞춤법을 모를 경우, 다시 교재를 찾아보고 정확한 형태를 익힐 수 있도록 피드백의 기회를 갖게 하였다.

한글 맞춤법은 고정 불변의 규칙이라기 보다는 다수의 독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규범이므로 원리를 찾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내면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하였다.

형성 평가를 실시한 나머지 시간에 한글 맞춤법 학습의 효과에 대한 설문과 면접, 질문 등을 통하여 성과를 측정하였다.

4. 지도 결과 분석

본 연구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표 11>의 계획과 같이 설문과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11> 연구 성과 평가 계획

순번	평가 항목	시기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비고
1	진단 평가	2003.12.	고2 2개 학급	평가지 활용	실험반, 비교반
2	설문 조사	2003.12.	수업 대상 173명	설문지법	학습 이전
3	형성 평가	2003.12.	고2 2개 학급	평가지 활용	실험반, 비교반
4	설문 조사	2003.12.	수업 대상 171명	설문지법, 면접법, 질문법	학습 이후

가. 진단 평가 결과 분석

1) 분석 방법

진단 평가는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험반 6개 학급 중 한 학급과 본 연구와 전혀 무관한 동학년 한 학급을 비교반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참고로 실험반 6개 학급은 인문반 학생들이고, 비교반으로 설정한 학급은 자연반 학생들이로서, 대부분의 과목에서 자연반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으며, 연구 학기의 국어 교과목의 문학 과목 평가에서도 인문반 평균 78.3보다 평균 5점 이상 높은 84.1의 성취도를 얻은 학급이었다.

2) 내용 분석

실험반과 비교반의 진단 평가의 정답률은 <표 12>와 같다.

<표 12> 진단 평가 정답률 비교

문항 번호	실험반(N=32)	정답률(%)	비교반(N=28)	정답률
1	17	53.1	18	64.3
2	20	62.5	21	75.0
3	26	81.3	25	89.3
4	25	78.1	24	85.7
5	30	93.8	27	96.4
6	31	96.9	28	100.0
7	27	84.4	25	89.3
8	30	93.8 ↑	24	85.7
9	29	90.6 ↑	24	85.7
10	26	81.3	23	82.1
11	32	100.0 ↑	27	96.4
12	23	71.9	22	78.6
13	16	50.0	19	67.9
14	26	81.3	23	82.1
15	14	43.8	18	64.3
평균		77.5		82.9

문항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실험반의 정답률이 평균 77.5%인데 비해 비교반의 정답률은 평균 82.9%로 5.4%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문항 중 실험반의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3문항에 불과했다. 평소 국어과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맞춤법도 잘 지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나. 학습 이전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분석 방법

학생들이 맞춤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은 실험반 6개 학급 173명이었다.

2) 내용 분석

<표 13> 설문 조사 응답 내용 (N=173)

번호	질문 내용	응답 내용	도수(명)	비율(%)
1	맞춤법에 대한 자신감	① 자신 있다.	0	0.0
		② 조금 자신 있다.	21	12.1
		③ 조금 자신 없다.	50	28.9
		④ 자신 없다.	102	59.0
2	맞춤법에 어긋나는 이유	① 표준어를 몰라서	13	7.5
		② 단어의 기본형을 몰라서	14	8.1
		③ 맞춤법 규정을 몰라서	42	24.3
		④ 맞춤법 규정이 어려워서	56	32.4
		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48	27.7
3	맞춤법의 중요도	① 아주 중요하다.	32	18.5
		② 중요하다.	138	79.8
		③ 그리 중요하지 않다.	3	1.7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4	맞춤법 해결 방법	① 아무렇게나 적는다.	26	15.0
		② 친구나 선생님께 문의한다.	101	58.4
		③ 국어 사전을 찾아 본다.	42	24.3
		④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찾아 본다.	3	1.7
		⑤ 컴퓨터를 활용하여 해결한다.	1	0.6

맞춤법 학습을 전개하기 전,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해 보면,

맞춤법에 대해서 자신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87.9%였다. 고등학교 2학년을 마쳐가는 시점인데도, 맞춤법에 조금 자신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2.1%임을 보면, 맞춤법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학생들이 맞춤법을 틀리는 이유로는 규정이 어렵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비율이 높고,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응답이 27.7%, 규정을 몰라서

가 24.3%로 한글 맞춤법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운데 반해 제대로 맞춤법을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맞춤법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반면, 맞춤법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98.3%나 되어서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상황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맞춤법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친구나 선생님께 문의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고(58.4%), 심지어 아무렇게나 적는다는 응답도 15%나 된 반면, 국어 사전이나 규정을 찾아본다는 학생은 26%에 불과해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분석되었다.

이 설문 결과 얻은 시사점은, 학생들이 맞춤법을 중요시 여기며 잘 지키고 싶은 욕망은 크지만, 제대로 학습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부담스럽지 않은 자료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충분히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해결 방법에 있어서 국어 사전과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 형성 평가 결과 분석

1) 분석 방법

형성 평가는 진단 평가를 실시했던 실험반과 비교반을 그대로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2) 내용 분석

실험반과 비교반의 형성 평가의 정답률은 <표 14>와 같다.

<표 14> 형성 평가 정답률 비교

문항 번호	실험반(N=32)	정답률(%)	비교반(N=28)	정답률(%)
1	31	96.9	28	100.0
2	29	90.6 ↑	25	89.3
3	30	93.8 ↑	26	92.9
4	30	93.8 ↑	25	89.3
5	30	93.8 ↑	26	92.9
6	31	96.9	28	100.0
7	26	81.3 ↑	22	78.6
8	32	100.0	28	100.0
9	29	90.6 ↑	21	75.0
10	30	93.8 ↑	25	89.3
11	32	100.0 ↑	26	92.9
12	26	81.3 ↑	19	67.9
13	27	84.4 ↑	20	71.4
14	25	78.1 ↑	18	64.3
15	27	84.4 ↑	21	75.0
평균		90.6		85.2

같은 학급을 대상으로 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전과는 거꾸로 실험반이 5.4점이나 앞서게 되었고, 총 15문항 중 12문항에서 정답률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 물론 비교반에 비해서 다섯 시간 동안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글 맞춤법은 비교적 누적된 학습 결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라. 학습 이후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분석 방법

학생들이 맞춤법에 대하여 학습하고난 뒤, 태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여 분석하였고, 이와 아울러 면접과 질문을 하였다. 설문 대상은 실험반 6개 학급 171명이었다.

2) 내용 분석

<표 15> 설문 조사 응답 내용 (N=171)

번호	질문 내용	응답 내용	도수(명)	비율(%)
1	맞춤법에 대한 자신감	① 자신감이 생겼다.	149	87.1
		② 큰 변화 없다.	20	11.7
		③ 더 자신감이 없어졌다.	2	1.2
2	자신감이 생긴 이유	① 맞춤법 지식을 알게 됨	40	26.8
		② 맞춤법 규정을 알게 됨	101	67.8
		③ 맞춤법 원리를 알게 됨	8	5.4
3	맞춤법 해결 방법	① 아무렇게나 적는다.	2	1.2
		② 친구나 선생님께 문의한다.	42	24.6
		③ 국어 사전을 찾아 본다.	80	46.8
		④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찾아 본다.	43	25.1
		⑤ 컴퓨터를 활용하여 해결한다.	4	2.3

설문을 통해 학생들은 맞춤법 학습 후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맞춤법 규정을 찾아보고, 그 원리에 따른 지식을 알게 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맞춤법이 의문 해결 방법을 국어 사전, 한글 맞춤법 규정 등에서 찾아보겠다는 응답이 71.9%나 되어, 맞춤법 학습 이전의 26.0%에 비하여 세 배 가까운 발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은 사람 사이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일종의 규범이므로 규정과 규정에 따라 편찬된 국어 사전을 찾아봄으로써 올바른 맞춤법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면, 본 연구의 한글 맞춤법 지도가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과의 면담과 질문을 통해서 반응을 지켜본 결과, 이전에는 맞춤법 규정을 딱딱하고 복잡하다고 여겼으나, 평이하고 생활에 많이 쓰이는 문항들을 접하면서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느꼈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다양한 자료를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발전적인 의견도 있었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한글 맞춤법을 학습하면서 원리가 너무 복잡하고 일상 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용례들이 과다하게 실려 있어 자신감을 잃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 앞으로의 맞춤법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V. 결론

1.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언중이 한글 맞춤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책임을 뛰어 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밝히게 되었다. 언어는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그 학습이 신비로운 현상이지만, 문자 언어의 경우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하여 맞춤법이라는 규범이 지켜져야 하는데 언어적, 사회적, 교육적 원인으로 한글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우리 언어가 걸어온 길이 복잡한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한글 맞춤법’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맞춤법에 맞도록 쓰도록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국어 교육의 문제이다. 한글 맞춤법 규정과 국어 사전만 가지고 한글 맞춤법이라는 규범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과욕이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글 맞춤법을 익혀 중등 교육을 마칠 시점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풍부하고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자료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방송 매체를 통한 의도적인 교육 효과도 노릴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 특별히 발전한 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손쉽게 맞춤법을 찾아 익힐 수 있도록 컴퓨터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글 맞춤법에 자신있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풍부하면서도 원칙에 맞는 국어 사전이 필요하다. 맞춤법이란 규범이 규정으로 정해진 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우리말의 맞춤법이 아주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는 제대로 된 국어 사전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글 학회와 국립 국어 연구원에서 국어 사전을 편찬하였으나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가서 국어 사전이 맞춤법의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맞춤법의 규정을 만드는 데 쏟을 힘을 모아 국어의 어휘와 각종 형태소의 형태를 확정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2. 제언

이 연구를 마치면서 한글 맞춤법 정책에 대하여 부족하나며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맞춤법 정책의 방향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맞춤법은 1933년에 제정된 것의 큰 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언어는 항상 변해가고 있으며, 특히 현대와 같이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는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언어의 변화는 그 속도가 현저히 빠를 수밖에 없다. 표준어와 맞춤법을 사정해 두고 그것을 고집하기에는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현행 맞춤법처럼 닫힌 규정으로는 모든 낱말의 변화를 기록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규정으로서의 맞춤법’의 형식을 넘어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맞춤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어 교육과 국어 사전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어 교육과 국어 사전을 통하여 맞춤법을 해결하도록 한다면 맞춤법에 맞게 적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오는 일반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문자를 가진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문자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법 교육을 강화하고 국어 사전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면 국어를 고급스럽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문법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에서 문법 교과서를 편찬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 심화 선택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법을 한 학기 내지 1년의 교육과정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이라는 난제가 연관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문법을 배움으로써 언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문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교육부(1997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8호(별책 5).
- 교육부(1997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2] 국어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국어(상)·(하),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3),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 국립국어연구원(1995), 한국 어문 규정집.
- 국립국어연구원(1997), 가나다 전화 자료집.
- 국립국어연구원(1999), 국어연구원에 물어보았어요 1999.
- 국립국어연구원(2001), 국어연구원에 물어보았어요 2001.
- 국립국어연구원(2003), 어문규범 준수 실태조사.
- 권영민(2003), 작문, 지학사.
- 노명완 외(2003), 국어 생활, (주)두산.
- 미승우(1988), 새 맞춤법과 표준어 해설, 지학사,

2. 논문

- 강수진(2001), 한글 맞춤법의 교수-학습 방법,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애경(2002), 한글 맞춤법의 수준별 교수-학습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귀옥(1984), 중학생의 맞춤법 표기 실태에 관한 연구 - 현행 한글 맞춤법과 맞춤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원(1992), 한글 맞춤법 오류의 교정 기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분제(2001),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 선정,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용균(1997), 한글 맞춤법의 사용 실태와 지도방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호경(1990), 중학생의 정서법 오류 분석 및 그 교정을 위한 실험 연구 - 형태 유문론적 오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호경(1999),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학연구 9집.

3. 단행본

강희숙(2003), 국어 정서법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김광해(2001),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민수(1973), 국어 정책론, 고려대학교출판부.

김봉모(2001), 국어정서법 강의, 세종출판사.

남기심·고영근(2001), 표준 국어 문법론, 탑 출판사.

남영신(1998), 국어 천년의 실패와 성공, 한마당.

노명완(1988), 국어교육론, 한샘출판사.

류영남(1986), 우리글 적기의 바른 길, 태화출판사.

리의도(1999), 이야기 한글 맞춤법, 석필.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우형식(1995), 국어 정서법,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이익섭·이상억·채완(2001),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희승·안병희(1994),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Abstract>

An analysis on orthographic error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a study for teaching methods of their correction

Jeong, Yeong-seop

(Directed by Professor Jo, Mi-jeong)

Education is the process to make human change deliberately. However, it hasn't made a great role in the case of the orthography. In the former study on it, researchers viewed its problems as individual factors, or they described it as the teaching methods for it. And they mentioned that the problems of it could be solved if learners and teachers did their best for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at orthographic errors don't result from the learning and teaching process for it. And this study points out that it is linguistic, educational, social, and structural problem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for higher educated people to feel less confident in the orthography.

According to this study, it mentions that there were reasons from orthographic problems : too frequent revisions in Korean orthography and insufficient efforts in spreading and fixing it. Moreover, there wasn't the base for students to learn it fully in the school curriculum and the entrance examination. In addition to this, the outer social environments such as broadcasting and internet have resulted in bad

effects for i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realities of the orthographic use and analyzes them in detail according to the system of its regulation.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on students' level have been searched for their corrections on Korean orthographic errors. Of course, as the structural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study has been searched for the way to accomplish the most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for it under the current situation of orthographic problems which have been ignored in the school curriculum and Korean textbook. The procedure for the study is to make the teaching materials of the orthography based on students' level, to make students organize the plans which are appropriate for them, and to design the model which can have them study the orthography through self-study with their own interest and ability.

In conclusion, students showed the positive changes in their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the orthography. They could correct the orthographic errors, using Korean dictionary and the regulation of it.

부록 1. 설문지

＜국어과 교사 대상＞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한글 맞춤법 지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평소 생각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꾸밈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는 학술 연구에만 사용됨을 밝힙니다.

2003년 10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정영섭 드림

1. 한글 맞춤법 지도는 국어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그리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고등학생들의 한글 맞춤법 사용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그리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3. 고등학생들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표준어를 몰라서 ② 단어의 기저형을 몰라서
③ 맞춤법 규정을 몰라서 ④ 맞춤법 규정이 어려워서
4. 맞춤법 지도는 어느 영역에서 하고 계십니까.
① 읽기 ② 쓰기 ③ 언어지식(문법) ④ 별도의 시간 확보
⑤ 안 가르친다.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한글 맞춤법 지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자께서는 평소 생각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꾸밈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는 학술 연구에만 사용됨을 밝힙니다.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정영섭 드림

- ① 아무렇게나 적는다. ② 친구나 선생님께 문의한다.
③ 국어 사전을 찾아 본다. ④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찾아 본다.
⑤ 컴퓨터를 활용하여 해결한다.

<학생 대상 지도 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한글 맞춤법 지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자께서는 평소 생각하고 가르치시는 대로 꾸밈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는 학술 연구에만 사용됨을 밝힙니다.

2003년 10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정 영 섭 드림

1. ‘표준어와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지를 학습한 결과, 한글 맞춤법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 ① 자신감이 생겼다.
- ② 전과 큰 변화는 없다.
- ③ 더 자신감이 없어 졌다.

2. [1번에서 ①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한 경우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맞춤법 지식을 많이 알게 돼서
- ② 맞춤법 규정을 많이 알게 돼서
- ③ 맞춤법의 원리를 파악하게 돼서

3. 앞으로 맞춤법에 자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① 아무렇게나 적는다.
- ② 친구나 선생님께 문의한다.
- ③ 국어 사전을 찾아 본다.
- ④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찾아 본다.
- ⑤ 컴퓨터를 활용하여 해결한다.

부록 2. 진단평가지

진단 평가 - 표준어와 한글 맞춤법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 ① 수렁 ② 수나사 ③ 수놈 ④ 수소
2. ① 깡충깡충 ② 막둥이 ③ 발가숭이 ④ 오뚜기
3. ① 바램 ② 상추 ③ 미숫가루 ④ 주책 ⑤ 호루라기

♡ 다음 () 안을 선생님의 발음을 듣고 채우시오.

4. 시는 (운율)있는 언어로 쓴 문학 예술이다.
5.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다.
6.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
7. 여름이 되면 나무들마다 새파란 (이파리)를 손처럼 흔든다.
8. 편지를 (부치고) 오너라.
9. (사랑니)가 내려는지 잇몸이 아프다.
10. 청소를 (깨끗이) 하기 바랍니다.
11. 아라비아 (숫자)로 적으세요.
12. 반장이 (돼서) 기분이 좋지만, 3학년이 (되면) 힘들 것 같아요.
13. 걱정마. 내가 언제나 도와 (줄게).
14.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15. 사람(으로서) 네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

부록 3. 형성평가지

형성 평가 - 표준어와 한글 맞춤법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 ① 뉘 ② 둘째 ③ 셋째 ④ 빌리다
2. ① 미장이 ② 유기장이 ③ 멧쟁이 ④ 소금장이 ⑤ 담쟁이
3. ① 가든지 말든지 ② 가던걸 ③ 갈려고
④ 먹습니다 ⑤ 없음

♡ 다음 중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4. ① 노을/놀 ② 막대기/막대 ③ 오누이/오늬
④ 외우다/외다 ⑤ 꼭두각시/꼭둑각시

♡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잘못된 것은?

5. ① 녀[녀] ② 녀과[녀과] ③ 밭다[밭:따]
④ 밭고[밭:꼬] ⑤ 뉘등글다[뉘똥글다]
6. ① 국밥[국뽕] ② 신고[신:꼬] ③ 갈등[갈똥]
④ 할걸[할겉] ⑤ 산새[산새]
7. ① 막일[망닐] ② 꽃잎[곤닙] ③ 내복약[내봉낙]
④ 늑막염[능마검] ⑤ 빨랫돌[빨래똥/빨랜똥]

♡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8. ① 반진고리 ② 선달 ③ 숟가락 ④ 절가락
9. ① 모깃불 ② 등교길 ③ 아랫집 ④ 깎잎
10. ① 햇별 ② 꿇기 ③ 햇님 ④ 솟자
11. ① 도와 줄께 ② 가면 갈수록 ③ 입을쏘냐 ④ 할지언정

♡ 다음 () 안을 선생님의 발음을 듣고 채우시오.

12. 식목일에 (부치는) 글
13. 상품의 (개수)를 적으세요.
14. 반장이 (돼서) 기분이 좋지만, 3학년이 (되면) 힘들 것 같아요.
15.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부록 4. 표준어 학습지

기본 1

공부해 봅시다 - 표준어와 표준 발음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 칙

♡ 표준어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계층 :

시대 :

지역 :

표준어 사정 원칙은 ()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

♡ 표준어와 맞춤법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 한글 맞춤법(제1장 제1항)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한글 맞춤법은 ()를 소리대로 적는 것입니다.

기본 2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 ① 꼬나풀 ② 동넙 ③ 들넙 ④ 새벽넙 ⑤ 동틀넙
- ① 부엌 ② 샅쟁이 ③ 칸막이 ④ 초가삼간 ⑤ 털어먹다

{{제3항 참고}}4/2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 ① 강낭콩 ② 고살(지붕 이을 때 쓰는 새끼) ③ 사글새

{{제5항 참고}}2

<참고> 국어교과서(상) 22쪽 '그 여자네 집'이 '고살'과 '고삐'는 어떻게 뜻이 다를까요?

우리 동네 바로 윗동네 가운데 고살 첫 집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

기본 3

⇒ **기본 4**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 ① 들 ② 둘째 ③ 셋째 ④ 빌리다 ⑤ 빌어 먹다

{{제6항 참고}}1

실험 문제를 풀기 싫은 학생은 기본 4로 넘어 가세요~*::

심화 1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 ① 수렁 ② 수나사 ③ 수놈 ④ 수소
2. ① 수깅아지 ② 수캐 ③ 수기와 ④ 수컷
3. ① 수탑 ② 수탕나귀 ③ 수폐지 ④ 수평아리
4. ① 숫양 ② 숫염소 ③ 숫쥐 ④ 수평

{{제7항 참고}}1/ 3/ 4/ 4

실험 문제를 풀기 싫은 학생은
이 쪽은 뛰어 넘어 가세요~*::

기본 4

⇒ **기본 5**

제2장

뉘은 변하에 따은 표준어 규정

<<제2절>> 모음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 ① 깡충깡충 ② 막둥이 ③ 발가숭이 ④ 오뚜기
2. ① 부조(扶助) ② 사둔(査頓) ③ 삼촌(三寸)

{{제8항 참고}}1/ 2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3. ① 서울내기 ② 시골내기 ③ 풋내기
④ 남비 ⑤ 아지랑이
4. ① 미장이 ② 유기장이 ③ 밋쟁이
④ 소금장이 ⑤ 담쟁이

{{제9항 참고}}4/ 4

실험 문제를 풀기 싫은 학생은 기본 5로 넘어 가세요~*::

심화 2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 ① 괴팍하나 ② 미루나무 ③ 오래 ④ 케케묵다

{{제10항 참고}} 3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2. ① 윗눈썹 ② 윗도리 ③ 윗니 ④ 윗목 ⑤ 윗돈
3. ① 윗입술 ② 위쪽 ③ 윗층 ④ 웃어른 ⑤ 웃옷

{{제12항 참고}}5/ 3

심화 문제를 풀기 싫은 학생은 이 쪽은 뛰어 넘어 가세요!~!!

기본 5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 ① 바램 ② 상추 ③ 미숫가루 ④ 주책 ⑤ 호루라기

{{제11항 참고}}1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 ① 구절 ② 경귀 ③ 대구 ④ 인용구 ⑤ 글귀

{{제13항 참고}}2

기본 6

⇒ **기본 7**

제2장

바른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절>> 준말

♡ 다음 중 표준어는 어느 것일까요?

1. ① 또아리 ② 무우 ③ 배암 ④ 생쥐 ⑤ 소리개

♡ 다음 중 복수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2. ① 노을/눈 ② 막대기/막대 ③ 오누이/오누
④ 외우나/외다 ⑤ 꼭두각시/꼭독각시
3. ① 네/예 ② 쇠고기/소고기 ③ 죄다/조이다
④ 썩다/썩이다 ⑤ 천상/천정

{{제14, 16, 17항 참고}}4/ 5/ 5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4. ① 네 돈 ② 너 말 ③ 너 되 ④ 너 자
5. ① 가든지 말든지 ② 가던걸 ③ 잘려고 ④ 먹습니다 ⑤ 없음

{{제17항 참고}}1/ 3

심화 문제를 풀기 싫은 학생은 기본 7로 넘어 가세요!~!!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 ① 설겅이 ② 차두 ③ 오동나무 ④ 애달프다 ⑤ 낭떠러지

{{제20항 참고}}1

♡ 다음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2. ① 안쓰럽다 ② 안절부절하다 ③ 열심으로
④ 주책이다 ⑤ 하지만

♡ 다음 중 복수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3. ① 가뭄/가물 ② 가래엿/가락엿 ③ 만큼/만치
④ 깨트리다/깨뜨리다 ⑤ 애달프다/애답다
4. ① 봉숭아/봉선화 ② 여쭈다/여쭙다 ③ 우레/천둥
④ 앉으세요/앉으셔요 ⑤ 사람이예요/사람이예요

{{제25, 26항 참고}}1/ 5/ 5

심화 문제를 풀기 싫은 학생은 이 쪽은 뛰어 넘어 가세요!~!!

기본 7

제2부

표준 발음법

제1장

총 칙

♡ 제1항 : 표준발음법은 ()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어의 자음은 ()개입니다.

♡ 표준어의 모음은 ()개입니다.

♡ 표준어의 단모음은 ()개입니다.

{{제2-4항 참고}}표준어, 19, 21, 10

기본 8

♡ 다음 중 발음이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가저[가저] ② 다쳐[다쳐] ③ 게집[게:집/게:집]
④ 지혜[지혜/지혜] ⑤ 예절[예절/예설]
- ① 날리리[날리리] ② 무너[무너] ③ 유희[유희]
④ 주의[주의/주이] ⑤ 우리의[우리의/우리에]

{{제5항 참고}}5/ 3

기본 9

제3장 소리의 길이

♡ 긴 소리가 잘못 기록된 것은?

- ① 눈보라[눈:보라] ② 첫눈[친눈] ③ 말씨[말:씨] ④ 참말[참말] ⑤ 밤나무[밤나무]
- {{제6항 참고}}5

제4장 받침의 발음

2. <제8항> 받침 소리는 ()개 자음만 발음한다.

♡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잘못된 것은?

- ① 닭다[닥따] ② 옷[옴] ③ 젓[절] ④ 앞[얏] ⑤ 덮다[덱따]

{{제9항 참고}}4

기본 10

♡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잘못된 것은?

- ① 녀[넉] ② 녀파[넉파] ③ 밝다[발:따]
④ 밝고[밥:꼬] ⑤ 넓둥글다[넙똥글다] {{제10항 참고}}3
- ① 닭[닥] ② 흉파[혹파] ③ 놓고[노코] ④ 각해[각카] ⑤ 농논[논논] {{제11-12항 참고}}4
- ① 낱은[나은] ② 옷이[오시] ③ 닭을[다글] ④ 겉옷[겨븐] ⑤ 헛웃음[허두슴] {{제13-15항 참고}}3
- ① 디글에[디고시] ② 지웃을[지으글] ③ 지웃에[치으세] ④ 티올이[티으시] ⑤ 허웅에[히으세] {{제16항 참고}}2

제5장

동학

♡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잘못된 것은?

1. ① 굳이[구지] ② 밭이[바지] ③ 밭을[바츄] ④ 단히다[다치다] ⑤ 읊는[음는]
{{제17-18항 참고}}3
2. ① 강릉[강능] ② 난로[날로] ③ 의견란[의견난] ④ 상견례[상결례] ⑤ 임원료[이원료]
{{제19-22항 참고}}4
3. ① 국밥[국햐] ② 신고[신:꼬] ③ 갈등[갈똥] ④ 활견[활겉] ⑤ 산새[산새]
{{제22-28항 참고}}5
4. ① 막일[망닐] ② 꽃잎[곤닙] ③ 내복약[내봉낙] ④ 녹막염[능마검] ⑤ 빨랫돌[빨래뜰/빨랫뜰]
{{제29-30항 참고}}4

심화 4

♡ 다음 낱말을 소리나는 대로 쓰시오.

1. 할지언정 []
2. 초승달 []
3. 흠이불 []
4. 남존여비 []
5. 신여성 []
6. 직행열차 []
7. 영업용 []
8. 서울역 []
9. 식용유 []
10. 등용문 []
11. 검열 []
12. 물약 []
13. 휘발유 []
14. 3연대 []
15. 스물여섯 []
16. 송별연 []
17. 6·25 []

{{제27-30항 참고}} 할지언정/ 초승달/ 흠이불/ 남존여비/ 신여성/ 직행열차/ 영업용/ 서울역/ 식용유/ 등용문/ 검:열, 거:별/ 물약/ 휘발류/ 삼년대/ 스물려섯/ 송:별련/ 유:기오

기본 12

공부해 봅시다 - 한글 맞춤법

제1장 총 칙

원 칙

- ♡ 한글 맞춤법은 ()를 소리대로 쓴다.
- ♡ ()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문상의 각 ()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 ♡ 외래어는 ()에 따라 적는다.

{{제1-3항 참고}}표준어, 어법, 단어, 외래어 표기법

제2장 자 모

- ♡ 다음 자음의 이름을 () 안에 쓰시오.
- ㄱ() ㄷ() ㅌ() ㅊ()

{{제4항 참고}}기역, 디귿, 시옷, 티읃

기본 13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 ♡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 1. ① 소쩍새 ② 기쁘다 ③ 겨꾸로 ④ 이따금
- 2. ① 잔뜩 ② 훨씬 ③ 깎두기 ④ 색씨

{{제5항 참고}}3/ 4

<<제2절>> 구개음화

- ♡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 3. ① 만이 ② 해돋이 ③ 구지 ④ 같이 ⑤ 묻히나

{{제6항 참고}}3

기본 14

♡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 1. ① 해택 ② 계집 ③ 팽계 ④ 계시관 ⑤ 휴계실 {{제 8항 참고}}5
- 2. ① 연세 ② 유대 ③ 익명 ④ 남여 ⑤ 공염불 {{제10항 참고}}4
- 3. ① 나열 ② 규율 ③ 비율 ④ 운율 ⑤ 백분율 {{제11항 참고}}5
- 4. ① 년이율 ② 열역학 ③ 내내월 ④ 상노인 ⑤ 비논리적 {{제12항 참고}}1
- 5. ① 딱따구리 ② 연연불망 ③ 유유상종 ④ 누누이 {{제13항 참고}}1

기본 15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 ① 너머지다 ② 늘어지다 ③ 옆어지다 ④ 흠어지다
- ① 드러나다 ② 살아지다 ③ 쓰러지다

{{제15항 붙임1 참고}}1/ 2

- ① 이것은 책이오. ② 이리 오시오.
- ③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
- ④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다.

{{제15항 붙임2-3 참고}}4

기본 16

♡ 다음 중, 용언의 활용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 ①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② 마지못하다 : 마지못해
- ③ 잇다 : 이어, 이으니 ④ 하얗다 : 하얗니, 하야
- ① 푸다 : 퍼 ② 꼬다 : 꺼 ③ 따르다 : 따라 ④ 담그다 : 담아 ⑤ 곱다 : 곱와
- ① 하다 : 하여 ② 푸르다 : 푸러 ③ 구르다 : 굴러 ④ 지르다 : 질러

{{제18항 참고}}4/ 2

기본 17

♡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고르시오.

- ① 미닫이 ② 웃음 ③ 만담 ④ 쇠붙이
- ① 마감 ② 마개 ③ 쓰레기 ④ 주집
- ① 날날이 ② 집집이 ③ 바두기 ④ 애꾸눈이
- ① 뭇아치 ② 바가지 ③ 이파리 ④ 지붕
- ① 앞사귀 ② 낚시 ③ 팀개 ④ 늑수그레하다

{{제19항 참고}}3/ 4

{{제20항 참고}}3/ 1

{{제21항 참고}}3

- ① 칼로 도려내다 ② 세금을 바치다 ③ 편지를 부치다 ④ 숙제를 밀우다

{{제22항 참고}}4

기본 18

♡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고르시오.

1. ① 개구리 ② 딱따구리 ③ 연록어 ④ 배꾸기

{{제23항 참고}}3

2. ① 꾸준히 ② 깨끗히 ③ 반드시 ④ 곱곱이

{{제25항 참고}}2

3. ① 간니 ② 사랑니 ③ 송곳니 ④ 틀이

{{제27항 참고}}4

4. ① 다달이 ② 바느질 ③ 소나무 ④ 불나비

{{제28항 참고}}4

5. ① 반질고리 ② 선달 ③ 순가락 ④ 절가락

{{제29항 참고}}4

기본 19

♡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고르시오.

1. ① 모깃불 ② 등교길 ③ 아랫집 ④ 깃잎

2. ① 햇벌 ② 핏기 ③ 햇님 ④ 숫자

{{제30항 참고}}2/ 3

3. ① 머리카락 ② 살코기 ③ 암캐 ④ 햇살

{{제31항 참고}}4

4. ① 비가 개이나 ② 반장이 됐다 ③ 선생님을 찾아 뵈다 ④ 자동차에 치였다

{{제32-36항 참고}}1

5. ① 그렇잖은 ② 적잖은 ③ 만만찮다 ④ 변변찮다

{{제39항 참고}}4

기본 20

♡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고르시오.

1. ① 간편케 ② 연구토록 ③ 생각컨대 ④ 넉넉지 않다

{{제40항 참고}} 3

2. ① 깨끗이 ② 느긋이 ③ 번번이 ④ 툼툼히

{{제51항 참고}} 4

3. ① 승낙 ② 안녕 ③ 분노 ④ 육월

{{제52항 참고}} 4

4. ① 도와 줄께 ② 가면 갈수록 ③ 입을쏘나 ④ 함지연정

{{제53항 참고}} 1

5. ① 심부름꾼 ② 일꾼 ③ 지개꾼 ④ 팔굽치

{{제54항 참고}} 4

기본 21

♡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고르시오.

1. ①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 ② 그 사람 말 잘 하네.

- ③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 ④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제56항 참고}} 3

2. ① 옷을 달이다. 약을 다리다.

- ② 답을 맞히다. 일을 마치다.

- ③ 만드시 지킨다. 반듯이 고개를 들다.

- ④ 힘이 부치는 일. 조건을 붙인다.

3. ① 이따가 오너라. 돈은 있다가도 없다

- ② 생선을 졸이다. 마음을 조린다.

- ③ 나를 미워할는지도 모른다.

- ④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제57항 참고}} 1/ 2